

발행인·박성대/편집인·김정길/주간·한학동/편집·정만진, 홍억선, 홍헌득/발행처·계성학교 총동창회/대구광역시 중구 대신동 259-5 계성빌딩 811호 ☎(053)255-3900
FAX(053)256-4942/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eisung.or.kr/인쇄처·민기획, 홍임호/대구광역시 중구 남산2동 244-17 ☎(053)256-8534, FAX(053)255-7831



새로운 100년, 화합과 단합으로 모교 발전에 기여할 것

본회, 2007년도 제1회 회장단 회의 열어

4월 20일(금) 오후 12시 그랜드호텔 다이내스티홀에서 2007년도 제1회 회장단 회의가 열렸다.

회의 전 참석자 모두가 간단한 자기소개를 하였으며, 박성대(38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2007년도 사업 방향을 장학기금의 모금을 통한 모교발전과 특히, 회원

상호간의 총화 단결과 모든 조직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의식, 열정이 기본적인 마음 자세로 자리잡을 때 총동창회 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며, 지난 임기중에는 장학기금 모금에 중점적인 관심을 가졌으나, 총동창회 발전기금 조성에 미흡하였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부회장 연회비의 조속한 납입요청을 하였으며, 김신길(54회) 부회장의 제안으로 친선 회장단 골프대회를 5월 23일 마우나오션(경주) 골프장에서 개최하였다.

최선을 다하는 병원 -

동보한방병원 · 동보정형외과

즐거운 병원, 편안한 병원 동보한방병원 · 동보정형외과는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보호자 없는 병동운영 24시간 간병인 보호-

♣최신수술장비도입♣

자동차보험 및 산재보험 지정병원

구급차대기 · 24시간 진료



병원장
한의학박사 장세환 (47회)
(총동창회부회장)



정형외과 원장
전문의를 박준욱



한·양방의 협진 진료병원

진료과목

척추
중치
비
120평 물리치료실

추(요통)
풍질
만
물리치료실



동보한방병원
DongBo Oriental Medical Hospital
TEL.(053)425-4085
FAX.(053)424-0943

동대구역 ■ ■고속버스터미널
■청구고등학교
신천지하철역
■동보한방병원
■동보정형외과
■대구공고내거리
지하철 신천역 4번출구(입원실 및 구급차상시대기)



동보정형외과
TEL.(053)425-0500
FAX.(053)424-0943
대구 동구 신천1동 503(지하철 신천역 4번출구)

진료과목

관절
관골
관절
증
재
수술
클리
수리
치
슬
닉
슬
닉
료

인사말

100년의 영광을 발판으로 200년의 더 큰 희망을...



조 준 제
(47회·재경동창회장)

높이 멀리 날아보자는 슬로건으로 준비해온 제23회 재경 계성 가족 친선 체육대회가 지난 6월 6일 여의도 국회 잔디구장에서 존경하는 선배, 동료, 후배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즐겁고 알차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즐거운 계성 가족의 축제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모든 동문께 다시한번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계성학교 재단 이사장님께서 함께하시어 격려를 해주셨으며 총동창회장님은 역시 우렁찬 목소리로 축사를 하셨습니다.

수 십년의 세월을 단숨에 거슬러 올라가 청소년이 되어 모인 동문들이 한강물이 넘실대는 대한민국 헌법의 심장인 국회 마당에서 펼쳐져 더욱 감격스러웠습니다.

고향과 모교를 잠시 그곳으로 옮겨와서 객지의 생활에서 부대꼈던 뚝은 때를 털어버리고 어린이로 돌아간 동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밝은 하루였습니다.

특히 모교 교사와 재경 동문들과 벌인 축구시합은 연장전까지 가는 명승부에도 사이 좋게 무승부로 마감하여 처음 열린 친선 시합의 의미를 부여하였습니다.

치열한 승부 근성을 발휘하면서도 때로는 너그럽게 양보하는 미덕을 발휘하는 멋진 계성인들, 선배와 후배가 함께 겨루

고 부대끼며 뜨거운 우정을 확인하는 모든 동문들의 모습을 보며 오늘 함께 흘리는 땀을 통하여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여 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우리 계성은 자랑스러운 개교 100주년을 거뜬히 넘겼습니다. 이 땅에 믿음과 교육을 사명으로한 우리 계성 학교가 태어난지 100년이 지났습니다.

한 세기라는 장엄한 역사의 깃발을 펴며 200주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모교는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 자랑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계성학교는 새로운 활력과 수혈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막강한 전통이 무색하리 만치 되보하고 있습니다.

그날 우리가 내뿜은 열기가 자랑스런 계성의 힘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 10년, 20년씩 젊어지게 하는 그 에너지를 다시 모아 100년의 영광을 발판으로 200년의 더 큰 희망으로 이어지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시 생활 전선에서 열심히 뛰는 우리 모든 동문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며 제 23회 재경 계성 가족친선 체육대회에 참여하신 모든 동문과 준비와 진행에 도움을 주신 동문들에게 재삼 감사를 드리며 계성의 모든 동문들이 항상 즐겁고 건강한 하루, 하루가 이어지시길 바랍니다.

여의도 벌에 울려 퍼진 계성의 함성!

재경 계성가족친선체육대회 성대히 열려 O.B-53회, Y.B-71회 각각 종합 우승의 영광차지

2007년 6월6일 수요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잔디구장엔 웅장한 애드벌룬이 솟았다. 재경 계성가족 체육대회를 알리는 깃발이다. 전날 밤까지 하늘이 심술을 부려 조마조마했지만 이날 아침은 쾌청하다. 지난해에는 100주년 행사에 힘을 모으느라 체육대회를 개최하지 못했다.

100+1주년 기념 체육대회다. 2000여명의 반가운 얼굴들이 모였다. TV 화면에서나 보던 의사당 마당에 모여 신명의 보파리를 풀었다. 기수별로 천막을 치는 수고로움도 생략되었다. 단체로 대행사에 맡긴 덕분이다.

동문회 체육대회는 동문의 혈연을 확인하는 마당이다. 수십 년 세월을 훌쩍 뛰어넘어 청소년 시절로 회귀하는 잔치다. 아내와 아들딸이 함께 계성가족이 되어 질펀하게 페스티벌을 펼친다. 승자, 패자가 없는 축제 마당이다. 70대 노 선배와 30대 후

배가 단박에 형님, 아우가 된다. 기분 좋은 날이다.

박성대 총동창회장님의 축사는 여전히 짜릿짜릿하다. 세상의 나이를 떨쳐버린 청년의 목소리다.

“금년은 미래 계성 100년의 원년입니다. 오늘 체육대회를 통하여 원년의 첫발을 힘차게 내디딤시다. 우리 계성인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중추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일꾼입니다. 모교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살피고 걸림돌을 직접 치워가며 새로운 백년의 미래를 열어갑시다.”

카랑카랑한 청년의 목소리에 화답하는 박수소리가 우렁차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조준제 재경 동창회장님의 대화사 역시 여의도벌, 한강 물결을 출렁거리게 한다.

“지금 우리는 수십 년의 세월을 단숨에

거슬러 올라 청소년이 되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계성 가족이란 이름이 더욱 자랑스럽게 느껴지는 찬란한 시간입니다. 선배, 후배가 함께 겨루고 부대끼는 가운데 뜨거운 우정을 확인합니다. 부닥치고 땀 흘리는 가운데 동문의 정을 몽글하게 느껴 봅시다. 오늘 우리가 내뿜은 열기는 자랑스런 계성의 힘입니다. 이 열기는 10년, 20년, 30년 젊어지게 하는 에너지입니다. 100년의 영광을 발판으로 200년의 미래를 열어갑시다.”

천막마다 잔치판이다. 잔치에 필요한 물품이 풍성하다. 술과 음식이 질펀하다. 날마다 오늘 같았으면 좋겠다. 내 것, 네 것 없이 음식을 나누고 술잔을 건네고 우정을 나눈다. 경기 참가를 독촉하는 본부석 마이크 소리가 때로는 애절하다. 목메어 불러야 우르르 몰려가 경기에 참가한다.

몸이 굳은 OB팀은 승패에 달관한 모습이다. 잠시 열을 올려 경기에 참가하고는 승자에게 박수를 보낸다. 패자도 그리 섭섭한 표정이 아니다. 경기가 끝나면 우르르 천막으로 돌아와 남은 술잔을 채우기에 바쁘다. YB팀은 눈빛이 펄펄 살아있다. 아직 달관전선 안 된다. 악을 쓰는 모습이 아름답다. 하루해가 짧다.

모교 선생님팀과 동문팀의 한 판 진검승부, 축구 경기가 하이라이트였다. 멋진 기적이 빛났다.

잔치는 끝나지 않는다. 잠시 멈출 뿐이다. 체육대회는, 누워 있던 열정을 일으켜 세우고, 잊고 있던 모교 사랑을 재촉하는 마당이다.

굳이 결의를 문서로 남기지 않아도 한마음이다. 아쉬운 부분은 내년에 채우면 된다. 경품 추첨에 뽑힌 사람도, 탈락한 사람도 내년을 기약한다. 흥분을 누르며 묵묵히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한 이들의 노고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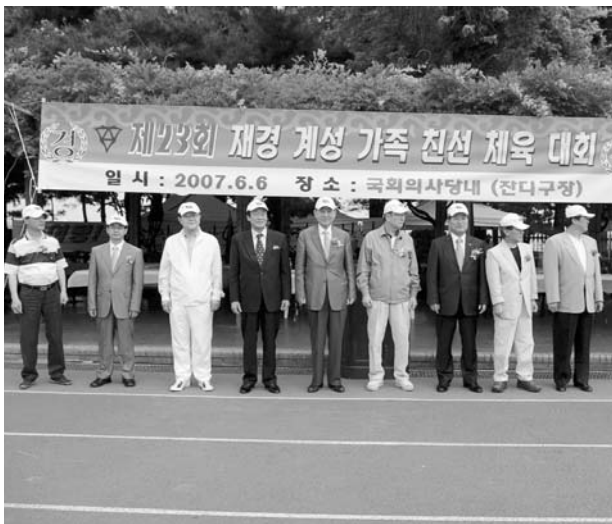
대구에서 올라온 동문들에게 보파리를 넉넉하게 채워주지 못함을 미안해하며 어둑어둑해진 여의도벌에 하루가 저문다. 의사당을 뒤로하고 울려 퍼진 교가, ‘~햇빛과 같은 너의 광채를 세상에 비취라 영원무궁 비취라~, 우리의 자랑인 계성아~!’ 애국가만큼 장엄하다.

체육대회 성적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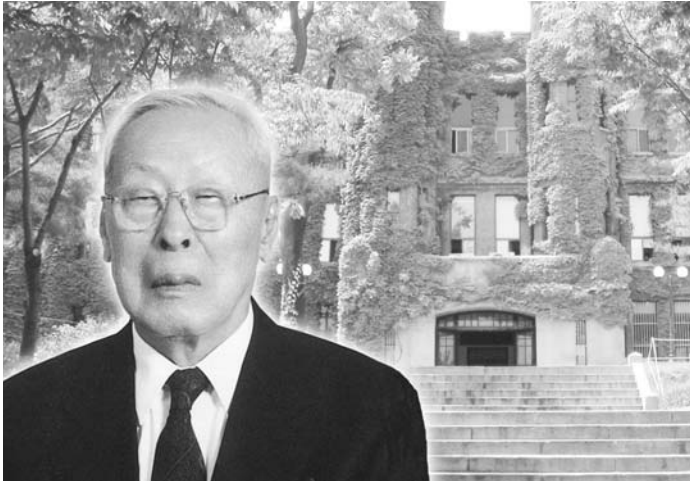
▷O.B팀 : 종합우승-53회, 2위-60회, 3위-63회

▷Y.B팀 : 종합우승-71회, 2위-74회, 3위-69회

글·이상우(61회·소설가)



故동산 신태식(18회) 박사 추모 음악회, 계명대 아담스채플에서 열려



제7대(1945년 8월 18일 ~1961년 9월 11일), 9대(1967년 1월 21일~1967년 7월 18일) 모교 교장을 역임하며 계성학교의 역사 속에 큰 발자취를 남기고 일생을 마감했던 동산 신태식 박사의 3주기를 기념하는 추모 음악회가 2007년 6월 25일(월) 오후 7시 계명대학교 아담스채플에서 열렸다.

학교법인 계성학원과 신명학원 그리고 계명대학교가 함께 주관했던 이 음악회에는 50명으로 구성된 계명 심포닉밴드(지휘 이강일(61회) 계명대 교수)의 관악합주 'Hymn to the Fallen(애도가)'를 시작으로 전

통악기 해금과 클라리넷의 반주로 정교하고 절제된 연주를 하여 가장 많은 호응을 받았던 계성중학교 혼성합창단(지휘 김정호 선생)의 '사모곡', 이강일 계명대 교수의 트럼펫 독주, 계명대 출신 성악인 8명으로 구성된 계명성악회의 중창 '하나님의 사랑', '나의 기쁨, 소망, 생명의 주', 박경숙 계명대 초빙교수의 첼로 독주 '재클린의 눈물', 80명의 신명고 여성합창단이 연주한 '너는 내 아이들이라', 계명문화대 김정화 교수의 메조소프라노 독창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등이 연주되었으며 정희치(48회) 경북

대 명예교수의 지휘로 나의 노래(獻詩/박목월 시 정희치 곡)를 소프라노 이화영(계명대 교수), 테너 하석배(계명대 교수), 베이스 홍순포(계명대 강사)가 계명대 합창단, 계명대 관현악단과 함께 연주하며 음악회의 휘날레를 장식했다. 특히 '나의 노래'는 시인 박목월 동문이 신태식 선생 회갑에 바치는 헌시여서 연주를 듣는 이들의 감동

을 더욱 자아내었다.

이날 음악회에는 계성중학교, 계성고등학교, 신명고등학교의 학생과 교직원, 계성유·초등학교 교직원, 재단 관계자 그리고 계명문화대학, 계명대학교의 교직원들은 물론 김태웅 계성학원 이사장, 정순모 신명학원 이사장, 신일회 계명대학교 이사장, 조병인 경북교육감, 박성대(38회) 계성학교 총

동창회장 등 각계의 인사들이 참석해 고인을 추모했다.

이날 음악회는 허도화 계명대 교목실장의 사회로 1시간 30분간 공연되었으며, 연주 후 유가족을 대표하여 신일회 계명대학교 이사장이 추모 음악회 참석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고, 관객들은 의양관 교수식당에서 뷔페로 피로연을 가졌다.

글·한학동(64회)



총동창회장단 경주에서 친선 골프모임 가져

지난 5월 23일 경주시 소재 「마우나 오션 CC」에서 계성총동창회장단 골프 모임이 열렸다. 이날 「마우나 오션 CC」의 날씨도 우리 계성을 반겨 주듯이 맑고 청명하여 이날 행사에 모인 20여 동문들을 반겨 주었다.

이날 박성대(38회) 총동창회장은 아침 일찍 서울에서 내려온 김용태(41회), 신성택(45회) 전 총동창회장과 김봉운(40회) 전 재경 동창회장 그리고 조준제(47회) 재경 동창회장들을 반갑게 맞이하였다.

밤새 비행기를 타고 새벽에 해외 출장에서 귀국한 이병구(53회) 동문을 비롯하여 막내 이진복(69회) 동문들과 모두 4개조로 편성되어 박성대 회장의 "NICE SHOT"으로 시작하였으며, 「마우나 오션 CC」를 경영하는 신현구(50회) 동문의 동반 라운딩으로 행사는 더욱 즐거운 한마당으로 이어졌다. 70대 초반으로 신성택 전회장이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골프모임을 마치고, 한자리에 모인 저녁식사 자리는 싱싱한 회가 푸짐히 마련되어 뒧 풀이의 즐거움이 더해졌다. 이날 식사는 이병구 동문이 협찬하였고, 돌아가는 동문들의 손에 손에는 박성대 회장의 정이 듬뿍 담긴 선물이 들려 왔으며,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음을 기약하며, 골프모임을 마쳤다.

글·이응재(64회·재경 사무국장)



이 경 우 齒科醫院

院長 / 齒科學 博士 李 庚 雨 (56회)

☎706-728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번지(MBC신사옥 9층)

TEL : (053) 754-4466

FAX : (053) 756-4411 H.P : 016-744-4542

E-mail : lkwoo0928@hanmail.net

동문들의 뜨거운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동참해 주신 동문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6만 동문 모두가 10구좌(100,000원) 이상 출연하여 모교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

고 그 이름을 글로벌화 하는데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해 주신분께 감사드립니다.

장학기금 납부자

(2007. 3. 7 ~ 2007. 6. 30까지 입금 내역임) (단위 : 원)

성명	기수	납입금액	성명	기수	납입금액
이상달	53	200,000	임병현	60	100,000
엄재길	58	120,000	장준영	64	100,000
김도년	40	100,000	허환	57	90,000
윤성광	49	100,000	윤월보	52	50,000
허성욱	52	100,000			
총합계		960,000			

100주년 사업 부담금

(단위 : 원)

기수	납입금액	기수	납입금액	기수	납입금액
27		48	500,000	69	
28		49	500,000	70	1,000,000
29		50	500,000	71	1,000,000
30		51	500,000	72	1,000,000
31	100,000	52	1,000,000	73	1,000,000
32	100,000	53	1,000,000	74	500,000
33	100,000	54	1,000,000	75	500,000
34		55	1,000,000	76	
35	100,000	56	1,000,000	77	
36	100,000	57	1,000,000	78	
37		58	1,000,000	부산지부	3,000,000
38	100,000	59	1,000,000	울산지부	3,000,000
39	100,000	60	1,000,000	시카고지부	500,000
40	200,000	61	1,000,000	뉴질랜드지부	500,000
41	300,000	62	1,000,000	구미지부	500,000
42		63	1,000,000	울진지부	300,000
43	300,000	64	1,000,000	인천지부	1,000,000
44	300,000	65	1,000,000	안동지부	1,000,000
45	300,000	66	1,000,000	서울지부	10,000,000
46	300,000	67	1,000,000	철곡지부	300,000
47	500,000	68	1,000,000		
총합계		47,000,000			

회보구독료 납부자

(2007. 3. 7~2007. 6. 30까지 입금내역임)

▷100,000원

박기진(37회), 김용진(45회), 김종문(52회)

▷50,000원

이송국(50회), 김시우(52회), 김규상(54회)
오진일(56회), 조정환(60회), 임문섭(60회)
김연호(64회), 장유석(65회)

▷30,000원

최상호(39회), 윤희직(44회), 김정문(44회)
갈병조(52회), 성기두(52회), 백수현(55회)
하제대(55회), 이회권(57회), 임경국(60회)
김수길(61회), 송자도(61회), 심영수(67회)

▷20,000원

김연국(39회), 윤위환(45회), 이정현(49회)
김한기(51회), 김현상(51회), 최명수(51회)
김병희(51회), 노병달(52회), 송종영(52회)
진광업(54회), 손수상(54회), 차인화(56회)
송중수(57회), 송승기(60회), 백기홍(60회)
권혁중(60회), 홍연호(63회), 서경수(64회)

장학기금 및 회보 구독료 기별 납입금 내역

(2004. 8. 1 ~ 2007. 6. 30까지 입금 내역임) (단위 : 원)

기별	장 학 금			회보구독료	
	기별부담금	개인	인원	금액	인원
23		400,000	4	60,000	4
26				50,000	1
27		5,000,000	1		
29	300,000	1,000,000	1	30,240	3
30	300,000	200,000	2		
31	1,000,000	200,000	2	30,000	2
32	300,000	300,000	1	40,000	2
33	1,500,000	300,000	2	10,000	1
35	200,000	150,100,000	2	170,000	7
36	300,000	100,000	1	160,000	14
37		15,100,000	2	260,000	7
38	1,600,000	36,600,000	9	80,000	6
39	1,000,000	900,000	4	810,000	48
40		7,600,000	11	280,000	13
41	5,000,000	11,245,000	5	110,000	7
42	5,000,000	16,600,000	13	410,000	22
43	5,000,000	4,400,000	16	170,000	4
44	5,000,000	27,930,000	28	940,000	39
45	7,000,000	48,930,000	16	650,000	30
46	7,000,000	8,700,000	15	270,000	20
47	7,000,000	42,050,000	11	400,000	21
48	7,000,000	1,750,000	7	270,000	10
49	7,000,000	12,050,000	13	450,000	18
50	10,000,000	51,700,000	8	750,000	26
51	10,000,000	21,900,000	9	950,000	65
52	10,000,000	142,200,000	24	1,060,000	49
53	10,000,000	115,200,000	20	1,110,000	62
54	10,000,000	3,350,000	12	1,090,000	66
55	6,000,000	2,600,000	13	550,000	34
56	10,000,000	69,330,000	21	1,270,000	61
57	10,000,000	480,000	4	690,000	40
58	10,000,000	12,860,000	13	880,000	30
59	10,000,000	1,150,000	7	600,000	29
60	10,000,000	10,220,000	21	1,040,000	65
61	10,000,000	3,210,000	4	380,000	26
62	10,000,000	200,000	2	410,000	15
63	10,000,000	1,620,000	8	610,000	45
64	10,000,000	12,580,000	16	930,000	51
65	10,000,000	300,000	3	350,000	23
66		1,000,000	6	310,000	19
67		100,000	1	180,000	7
68	10,000,000	600,000	4	450,000	32
69		650,000	8	510,000	25
70	7,000,000	300,000	4	120,000	6
71	7,000,000	570,000	7	380,000	28
72		240,000	1	100,000	8
73		130,000	2	140,000	9
74	7,000,000	200,000	3	30,000	3
75				60,000	3
76				10,000	1
78		50,000	1	20,000	2
원주지부		400,000	13		
고령지부		300,000			
재천지부		400,000			
포항지부		3,000,000			
영천지부		1,000,000			
시카고지부		2,000,000			
구미지부		500,000			
영덕지부		500,000			
경주지부		1,000,000			
울진지부				30,000	
무명		140,000	3	545,000	34
계	248,500,000	853,435,000	407	21,205,000	1,143

박영태(65회), 김국진(68회)

▷10,000원

이승하(36회), 전재하(37회), 김수관(39회)
김정용(39회), 김규형(39회), 허동원(39회)
장활수(39회), 송판수(39회), 이관상(39회)
김도년(40회), 박희영(42회), 백영수(42회)
도재진(46회), 박영남(48회), 이춘섭(49회)
윤성광(49회), 황성길(51회), 김태근(51회)
김성식(51회), 서상근(52회), 윤월보(52회)
하태철(53회), 김명세(53회), 이원근(53회)
안일준(53회), 김청진(53회), 박지주(54회)

양창규(54회), 김희승(54회), 최재택(55회)
류효일(55회), 나채문(56회), 이상배(57회)
허환(57회), 곽원호(57회), 이윤재(60회)
김효종(60회), 추기근(60회), 박상준(61회)
김진규(61회), 김종희(63회), 박인동(63회)
이동준(65회), 권동혁(66회), 장윤호(69회)
고종수(71회)

계89건 1,920,000원(누계:21,205,000원)
※혹 착오 있으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회보 구독료를 보내주신 동문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더욱 더 발전하는 동창회보가 될 수 있게 동문들의 정성을 기다리겠습니다.

동기회 순방 · 41회

“전쟁 중에 학교 다녔지만 계성만한 학교는 어디에도 없어”

“총동창회 체육대회가 시작된 건 우리 41회 공로야”

2007년 5월 25일 정오, 대구 수성구 범어로타리 인근의 한 식당 2층. 몇 분의 계성 원로 선배들께서 환담을 나누고 계신다. 김순곤(고교 교장 역임), 배성태(사업가), 백승달(계명대학교 기획부장 역임), 손덕영(계명대학교 명예 사무처장), 우정택(대구향교 유도회 회장, 총동창회 부회장), 윤병태(체육인) 이렇게 여섯 분이시다. 모두 계성 41회이시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41회에는 김용태(국회의원, 장관 역임), 김위생(미합중국 유도회장 역임), 김진호(서울구청장 역임), 도재호(대구구청장 역임) 동문 등 사회적으로 저명한 분들도 다수 계시다.

“우리 41회 동기회는 1966년 처음 조직되었어. 그때부터 1978년까지 정성룡 동문이 혼자서 회장을 맡아 재정도 다 책임졌지. 오늘까지 41회 동기회가 잘 유지된 것도 다 그 친구 덕분이야. 흠켜밍은 79년에 했고... 그리고 보니 그것도 벌써 거의 30년 전이군. 동기회 총무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있는 윤병태 군이 1996년까지 20년간 도맡아 봉사했으니 이 사실 또한 우리 동기들이 모두 기억하고 있지.” 하시며, 동창회보 편집진을 맞아 즐겁게 지난 시절을 회고 한다.

“우리 41회의 자랑은 화합이 잘 된다는 점이야. 정말 멋지게 융화가 되지. 얼마 전에 계성장학기금 마련할 때에도 너나 할것없이 십시일반으로 협조하여 동기회 몫을 부담했지. 해마다 열리는 총동창회 행사에 체육대회를 넣은 것도 우리 41회의 공로야.”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엔 해마다 선생님들과 전교생이 모두 참여하는 눈싸움 행사가 있었어. 당시 신태식 교장 선생님께서 세계인권기념일 전후의 눈 오는 날에 맞춰 계명대 대명동 캠퍼스에서 눈싸움대회를 연 거야. 이게 계성의 정신이지. 그냥 눈싸움도 아니야. 눈으로 안시성 같은 성벽까지 쌓아놓고 대단했지. 뒤에 눈싸움 대회는 두류공

원 아래 공동묘지 인근 보리밭에서 펼쳐졌는데 행사가 끝나고 나면 보리밭 뽕밭 보상을 주인에게 물어주었어. 물론 학교에서 물어주었지. 전쟁 직후인 그 무렵은 집에서 공부할 사정이 안 되는 학생이 대부분이라, 학교에서 밤새도록 도서관에 전기를 켜주었지. 우리 학교의 배려를 정말 많이 받았어. 과연 계성 학교였지.”

눈싸움 행사가 단연 일급 추억으로 떠오른다. 화제는 금세 신태식 교장선생님에 대한 회고로 이어진다.

“하루는 눈이 왔는데 쉬는 시간에 몰려나가 눈싸움을 하다가 마침 지나가시던 교장선생님 눈에 타격을 가하게 되었어. 이제 크게 혼나게 생겼다 싶어서 의기소침해 있는데 교장선생님께서 눈싸움을 같이 하자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일제히 교장선생님을 공격했지. 교장선생님께 왜 내 편은 한 사람도 없냐 하셔서, 다시 공평하게 편을 갈라서 계속했어. 쉬는 시간이 끝나갈 무렵이 되자 교장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좁은 데서 이렇게 눈싸움을 하다가 교장 선생



▲ 범어로타리 인근 식당에서 환담을 나누고 있는 41회 동기들.

었는데 우리 계성이 전국 3위를 했어. 우리 41회 중 단 3명만 불합격하고 다 합격했지. 물론 대구·경북에선 단연 1위였지. 학교 분위기가 좋으니 면학풍토도 멋지게 조성된 거야. 요즘 교육계 종사자들이 이 점에 대해 깊

노래야. 선조들이 노래한 대로 배워야지’ 하시면서 펄쩍펄쩍 뛰고 춤을 추면서 가르치셨어.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학생을 때리는 법도 결코 없었고.”

김문선 선생님에 대한 회고도 이어진다.

죽도 41회 중엔 당시 선생님들께 연하장 보내고 종종 찾아뵙는 친구들이 있어. 요새 스승의 날 행사를 보면서 생각하는데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 담임 찾아갈 일이 아니라 옛스승을 찾아뵙어야 옳아. 그렇게 자녀에게 모범을 보이면 세상이 다 잘 되는 법이야.”

전쟁 중에 학교를 다녔으면서도 고회를 훌쩍 넘긴 지금도 생생하게 교육적 마인드가 살아있는 41회 선배들의 추억을 들으며, 역시 우리 계성학교는 진정한 교육기관이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젖어본다.

글 · 정만진(61회)

대학입학자격고사에서 전국 3위 성적 올린 41회 신태식 교장선생님의 “학생 배려” 지금도 그리워

님 눈을 톱툰 붓게 만들고, 유리창도 깨뜨리고 하면 안 되겠제? 앞으론 운동장처럼 넓은 공간에서 눈싸움을 하도록 해라.”

“맞아. 신태식 선생님은 인격적으로 정말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지. 나는 성인이 되어 교육계에 종사하면서 항상 교장선생님의 풍모를 떠올렸어. 당시 계성학교는 폭력이라곤 전혀 없는 학교였어. 상급생이 하급생 기합주는 일도 전무했지. 요즘 같은 왕따나 학교폭력 같은 그런 건 계성 역사에 없었어. 그 무렵 대학입학자격고사가 처음 실시되

이 연구를 해보았으면 좋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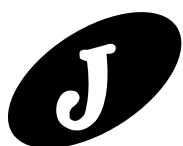
41회를 가르쳤던 유병석 선생(계성중고에 재직하다가 뒷날 계성초 교장 역임)에 대한 회고도 이어진다.

“마을 어른들이 비밀리에 독립운동하는 걸 화제로 떠들고 있었는데 지나시다 그 말을 들은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런 애긴 조심해서 해라. 일본놈들한테 들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시청 앞에서 조선어독본을 사가지고 와서 우리 말 우리글을 배웠던 기억이 나. 청산별곡 강의 팬 ‘이게 민중의

“공납금을 안 내면 시험 칠 자격을 박탈당했는데 그래도 졸업할 때 우등상을 주시더라고. 요

탕방이 끝난후, 우정택(41회, 총동창회 부회장) 동문은 다음과 같은 원고를 본 기사에 추가해 달라고 하였다.

작년 가을에는 김태창, 배성태, 우정택, 윤병태 네 동기가 철곡에 있는 신도환 선생님의 산소를 찾았다. 선생님 산소에 별초라도 한번 해드리는 게 제자된 도리가 아닐까 싶어서였다. 그러나 산소가 너무나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어서 그럴 필요는 없었다. 그날 내려오는 길에 우연히 꽃바구니를 들고 오는 선생님의 따님과 손녀를 해후했다. 반갑게 인사를 했고, 다시 한번 선생님에 대한 추억을 되새겼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우리가 정성을 모아 선생님 산소에 공적을 기리는 묘비를 세워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壯園造景株式會社
주식회사 이지개발

代表理事

金 特 晚 (59회)

본 사 : 경북 구미시 형곡동 321번지 2층 9호
대구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43-23번지
TEL : (053)764-6999 FAX : (053)764-6990
H.P : 011-525-5385

인 터

‘미래를 앞당기는 공동체’ 건설 위해 IT, NT, BT사업 매진

“하나님의 쓰임에 계성가족들이 좀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병 구 (53회) (주)네패스 회장



인터넷에서 대졸 신입사원 연봉 순, 산업별 연봉 순을 검색해보면 우리나라 주요기업 중 110위를 전후하여 네패스, 대우일렉트로닉스, 동양매직, 한국정보통신, 한국후지제록스 등이 떠오른다. (주)네패스의 CEO가 바로 모교 53회인 이병구 동문이다. (주)네패스, 놀라울 정도로 급성장을 거듭하여 손가락에 꼽히는 기업으로 우뚝 섰다. 불과 17년만의 일이다.

네패스(주)는 1990년에 1억의 매출로 시작하였는데 17년이 지난 2007년 올해는 무려 2000억 원대의 매출을 계획하고 있다. ‘시작은 미미하나 끝은 창대하리라’는 성경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네패스의 영업 영역은 평판 디스플레이에서 사용되는 표시 정보를 제어하는 반도체를 제조하는 IT기반의 반도체 사업과, LCD 화면의 색깔을 나타내 주는 재료 등을 제조하는 NT기반의 전자재료 사업, 반도체 공정을 도입, 은의 살균력을 물과 공기에 세계 최초로 적용하여 만든 살균기, 살균수 등의 BT기반의 환경/에너지사업의 각기 다른 산업의 IT, NT, BT의 3각 구도를 보유하고 있다.

한마디로 최첨단이다. 게다가 국내에 4개, 해외에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미국, 일본 등지에 4개의 현지 판매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니 가히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하고 있다고 하겠다.

사업이 국제적인 만큼 CEO

인 이병구 동문의 발걸음 또한 전지구적이다. 총동창회보에서는 계성의 자랑인 이동문을 여러 차례 인터뷰하고자 했고, 일정까지 구체적으로 약속했었지만 결코 한가롭지 아니한 이동문의 가변적 스케줄 때문에 좀처럼 성사되기가 어려웠다. 너무나 이동문이 바쁜 탓이다. 현대 사회의 특징이 별로 하는 일 없는 사람들조차도 “바쁘다, 바빠”를 입에 달고 사는 것인 탓에 ‘느리게 사는 행복’을 구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분위기지만, 보통 사람이 아닌 이동문의 분초를 다투는 삶이야 두루 세상에 바

해 가격과 경쟁력 제고, 동시에 불편을 없애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마침내 과감하게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제 어지간히 성과를 이루었지만 이동문의 성취욕구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본래 꿈이 큰 사람은 쉴 줄을 모르는 법이다. 이동문이 밝히는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자. “네패스의 핵심역량 중 하나가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입니다. 반도체, Display 산업에 필요한 부품 소재에서 깨끗한 환경을 위한 Clean Room의 건설 및 관련 자재부품,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할 바이오 사업부문까지 다양한 사업군과 그에 필요한 사회적 생산기반을 계속 성장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세계화를 위한 해외 법인 설립, 차세대 제

을 갖고 있으며, 어려운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학업에 충실한 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복지시설을 직원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방문, 그들을 격려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러나 이동문은 말한다. “크지는 않지만, 작은 활동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겸손하다. 그러나 말과 달리 그의 봉사활동은 외국에까지 뻗어 있다. 한때 우리보다 선진국이었던 오렌 전쟁의 후유증으로 지금은 훨씬 낙후해 있는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사랑의 병원을 세우는 일까지 하고 있다.

과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이의 참다운 진면

자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이동문은 하나님의 정신과 유단자의 건강을 싹틔우고 키워준 모교에 대한 사랑과 자랑을 토로한다.

“항상 우리 모교가 자랑스롭습니다. 언제나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건학이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광의 100년 역사를 이루었으니 재차 다짐하여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문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 200년, 300년의 빛나는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다시 이동문이 간절한 바람의 말을 덧붙인다.

“모교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세워졌고, 수학시에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교육을 받았습시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너무 많은 동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미력하나마 동창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전파하는 일에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토록 바쁜 와중에 일상적으로 모교생각까지 하는 이동문을 보며 그의 건강걱정을 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여가를 선용하고 건강을 관리하는지 질문을 던져본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우선 틈이 나면 경영과 관련된 책자를 읽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위해 가끔씩 많이 걸으려 노력합니다. 골프를 칠 때도 건조. 아울러, 여행을 좋아합니다. 올해는 가족들과 북유럽 4~5개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문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동문들 간에 좀더 실질적인 교류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면서 “활발하게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후배들과 일선에서 한 발 물러서 계시는 선배님들 사이에서 가고 역할을 충실히 하는 계성가족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노라는 결심을 밝히신다. 그의 가족과 회사, 그리고 사회활동 위에 하나님의 가호가 더욱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린다. 글·김정길(56회, 총동창회 사무국장)

연간 1억 매출에서 17년만에 2000억원 매출로 성장 “동문간에 좀 더 실질적인 교류가 오갔으면 좋겠어요”

랍직한 일일 것이다. 그의 말을 들어보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데에 온 가족과 회사가 쓰임받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그의 분주는 하늘의 계획인 것이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회사 고객과의 만남에서부터, 해외 유관 단체와의 만남까지 바쁘게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은 해외 선진 연구소와 공동 개발 및 합작 등 회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요즘 근황이 어떠시냐는 동창회보 기자의 질문에 대한 그의 답변이다.

이동문은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반도체 회사에서 근무하기 시작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국내에는 반도체 기반이 아주 취약하여 장비와 재료를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를 보고 깨달은 바 있어 이 동문은 미국과 일본의 Benchmarking을 통해 국내 고객에게 국산화를 통

품의 끊임없는 연구 개발 등 열정적이고 활동적으로 만들어 (주)네패스의 비전인 ‘미래를 앞당기는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동문은 이렇게 바쁜 중에도 폭넓은 사회활동과 봉사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정밀화학산업 분야의 균형있는 발전을 통해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한국정밀화학공업 진흥회에서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동창회 수석부회장, 그리고 21세기 병원관리자 3기 회장을 맡고 있다. 계성 재경 53회 회장직과 Golf회 회장을 약 2년간 수행하였고, 지금도 총동창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난치병환자와 뇌성마비 장애우를 위한 세브란스 건강마라톤대회를 해마다 후원하고 있고, 모든 직원들과 함께 대회에 직접 참여하여 소외된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목을 보여준다. 물론 이동문 혼자만이 아니라 전가족 모두가 그러하다. 이동문은 부모님께서 장로와 권사로 계시고, 부부가 안수집사와 권사이며, 1남 2녀 자녀들도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루하루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다.

학창 시절의 추억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젊은 후배들과 재학생들을 위해서다. “반세기 전의 일이 되었는데도 잊혀지지 않는 일은, 제가 유난히 다리에 털이 많아서 생긴 일인데 말입니다. 유도시간이 되면 모두가 유도복을 갈아입고 도장에서 유도를 했었죠. 그때, 저는 다리털이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먼 쪽으로 빙빙 돌면서 연습을 했었죠. 그러다가 연습에 열중하지 않고 걸돈다고 유도선생님께서 오해하여 배대 뒤치기를 넣어 아주 혼이 났죠. 그런데 그 벌을 받고 나서는 그 콤플렉스가 싹 없어졌어요. 유단



동 토크방

“기업 성장의 원동력은 노사의 상호 신뢰에서 출발”

「상공의 날」 석탑산업훈장, 「무역의 날」 수출의 탑 수상



나주영 (62회)
제일테크노스 대표이사

고향 경북 성주 대가면, 계성고등학교와 경북대학교 공과대학 공업화학과 졸업, ROTC 제 17기 포병장교 복무, 삼성그룹 제일합섬 근무, 포항상공회의소 상공위원,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이사, 1997년 무역의 날 100만불 수출의 탑 수상, 1998년 조세의 날 표창, 중소기업청 기술혁신상 수상, 상공의 날 경북도지사 표창, 1999년 중소기업협동조합 우수기업상 수상, 2003년 중소기업청 INNO-BIZ 기업 선정, 철선 KS 취득, DECK 건설교통부 신기술 인정, 2WAY DECK SLAB SYSTEM 특허공법 개발, 2004년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기술인증서 취득, 2005년 대한건축학회 건축성능인증서 취득, 품질인증원의 건설자재부문 품질혁신우수기업 인증, 기술표준원의 E.M MARK 인증, 대한민국 건설문화대상 수상, 2006년 대구지방노동청 노사협력증진과 산업평화정착 우수기업 표창, 2007년 상공의 날 석탑 산업훈장 수상, 국내 최대의 건축분야(DECK PLATE)와 국내 최고의 조선용 철판 전처리(SHOT-BLAST) 업체인 (주) 제일테크노스 대표이사 나주영

(羅周永)…….

제일테크노스는 1971년 창립되었다. 포항철강공단이 막 조성되던 시기다. 사업 초기에는 주로 노동집약적인 사업영역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에 몰두했다.

그러다가 90년대 초부터 SHOT BLAST(조선산업) 사업과 DECK PLATE(건축산업) 사업에 핵심역량을 집중하여 조선용 강재의 전처리 물류시스템화 및 절단, 소조부문의 전문화 기업으로 성장한 끝에 국내 조선사에 연간 100만톤 이상의 물량을 처리하여(국내 최대 최고의 조선용 후판 전처리 업체) 즉시공급(JIT SYSTEM)하게 되었고, DECK 제품의 꾸준한 신제품을 개발하여 국내 최대의 SOC 사업인 영종도 신공항 여객터미널(45만㎡) 청사건축에 자사의

장을 기록하고 있으며(2006년 685억원 매출), 2010년에는 매출 1천억원을 달성할 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근래 대규모 자동차회사 노조의 파업 문제로 방송과 신문들이 연일 시끄럽다. 바라보는 국민들도 불안해하고 있고, 화합과 단결로 수출입국의 길을 활기차게 열어가지 못하는 노사 양쪽에 준엄한 질타의 목소리가 가해지고 있다.

이에 대한 해법을 CEO인 나주영 동문에게 한번 물어본다. “도화지 한쪽 면에 물감을 칠한 다음 반으로 접으면 반대쪽 면에도 똑같은 모양이 나타납니다. 데칼코마니죠. 저는 노사관계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주먹을 그려서 반으로 접으면 주먹이 나오고 화해의 손을 그려서 접

상의 고충처리를 통해 더욱 화합의 토대를 단단하게 구축한다. 우리 나라 경제의 최악의 위기였던 IMF도 단 한 명의 구조조정 없이 극복했다.

제일테크노스는 창사 이래 36년 동안 무분규 사업장을 달성하였고, 2006년에는 중앙정부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상을 받기도 했다.

나동문은 개인적으로도 열성적인 사회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력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포항상공회의소 상공위원, 경찰서 보안지도위원, 경북카누협회 이사, 포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이사 등이 나타나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해준다.

뿐만 아니라 일선 실업가로서 존각을 다루는 생활을 하면서도 포항공대 최고경영자과정을 수

제일테크노스(대표 나주영)는 합성용 테크플레이트를 연이어 개발해 업계의 마켓리더로 자리하고 있다. (중략) 꾸준한 성장을 통해 견실한 중견기업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제일테크노스는 테크플레이트 마켓웨어 부문 부동의 1위를 달성하는 등 건설시장 개척과 확대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 회사는 철저한 기술력 위주의 선진경영을 통한 기업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중략) 철근 일체형 제품의 가장 단점이며 현장에서 하자 발생 원인이 되는 철선과 아연도 강판의 용접부 녹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수한 품질의 NEW TRUSS(NT) DECK의 신제품을 2년만에 개발하여 테크플레이트 시장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조선용 후판 전처리업체에서도 이 회사의 기술력은 그대로 입증되어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중략)

나대표는 ‘새로운 시장 개척과 창출을 위한 블루오션의 기업전략을 수립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면서 ‘일선의 영업전선에서 보고 듣고 느낀 바를 기술개발로 연계하는 고객위주의 기업문화 창달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기사를 읽어보자. “제일테크노스의 성장의 밑거름에는 불철주야 회사발전을 위해 고뇌하고 새로운 시장창출을 위한 블루오션의 기업전략을 수립하고, 또한 최일선의 영업현장에서 알게된 것들을 기술개발로 연계하는 최고 CEO의 고객위주 영업정책에 의해 이루어졌다.”

글 · 한학동(64회)

“영업실적 제고는 기술개발 중심의 기업문화가 바탕” IMF때도 단 1명의 해고없이 노사단결로 어려움 극복

KEM DECK를 전량 설치하였으며, 주거공간인 타워펠리스(15만㎡), 쉼빌(9만㎡), 하이페리온(15만㎡) 등 수많은 초고층 빌딩과 오피스텔, 상업시설에 납품하였다.

SHOT BLAST 사업에서는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에 연간 105만톤(선박 130척 건조량)의 전처리 물량을 공급함으로써 약 120억불 이상의 선박수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2001년에는 세계일류 중소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제일테크노스는 2002년 약 1백만㎡의 DECK PLATE 생산으로 약 2백억원의 매출을 달성한 이래 해마다 평균 20% 이상의 매출성

이면 어김없이 화해의 손이 나오죠. 노조는 경영진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일테크노스는 매년 모든 임직원이 참가하는 노사 한마음 워크숍을 열어 노사가 한마음이 되는 여건을 조성하고, 국내 명산 산행, 마라톤대회 참가, 단체 래프팅을 실시한다. 체력단련장 운영, 통근버스 운행, 학자금 지원, 기숙사 제공, 사우회 지원 등도 기본이다.

제일테크노스 노사는 마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함께 바라보는 노사인 것이다. 2006년부터는 유치원비도 지원하고 있고, 해마다 4회 이상의 노사협의회 개최와 20건 이

료하는 등 학구적 노력에도 성실하기만 하다. ‘직무만족과 직무몰입에 관한 이론적 연구’ 등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자”는 그다운 좌우명을 신조로 살아가고 있다. 가족은 부인과 두 아들이 있다.

나동문과 제일테크노스에 대한 언론의 관심도 대단하다. 일부 보도를 인용하여 읽어보는 것도 그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과거의 보도는 생략하고 2006년 기사 중 두 꼭지만 살펴보자.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최대 테크플레이트와 조선용 철판 기업으로 성장을 이루어낸 (주)



▲ 제일테크노스 회사 전경

『계원』으로 돌이켜보는 50계단의 추억(1)

계성은 1960년에 벌써 방송반이 교내 체육대회를 생중계했다!

학교 위상 잘 증언해주는 모교 주최 경북 도내 국민학생 문예콩쿨, 영자신문 발행

올해(1960년)의 교내 체육대회는 일기 청명한 가운데 성대히 막을 올렸다. 6월 23일 유월의 푸른 하늘 아래 높이 울린 종소리와 함께 시작된 체육대회는 먼저 개회사에 이어 교감 선생님의 간단한 격려사가 있는 후 곧 시작되었다. 23일은 중·고 각각 예선을 마쳤는데 이날은 위령제로 말미암아 학생들은 술선 응원을 나와서 한결 경기가 흥미를 일으켜 성황을 이루었다. 특히 방송반의 실황 중계 방송은 놀라웠고, 심지어 발전기까지 동원하여 힘을 쓴 것 또한 체육대회를 관람하는 학생들을 더욱 손에 땀을 쥐게 했으며 선수들마저 분발시켰다. (계원 제43호 3면, 1960년 7월 9일 발행)

지금(2007년)의 눈으로 보아도 역시 계성의 교육기관다운 단단한 내실은 참으로 대단하기 그지없다. 감히 어느 학교가 이러한 위용을 역사에 남길 수 있을 것인가! 중고등학교가 발행하는 교내신문이 지금으로부터 거의 반세기 전인 1960년에 이미 43호를 내고 있었다는 자체도 놀라운 일이거나(1952년 제1호 발행), 대구 시내 대부분의 고교가 아직도 잘 실행하지 못하는 방송반 체육대회 생중계를 아득한 지난 시대에 벌써 선보였으니 어찌 경천동지, 괄목상대할 만한 위업이 아니랴!

신문기사 안에 등장하는 위령제 이야기가 눈길을 끈다. 위령제를 하고난 직후라 체육대회에 임하는 학생들의 의기가 더욱 분발하였다는 내용이다. 위령제라니? 학교에 무슨 대형 사고라도 났단 말인가? 근래에도 가스폭발 참사에 지하철 방화 사건으로 얼룩져 천하에 오명을 남긴 대구가 아닌가. 지난 60년대에도 학생들까지 참석해야 할 지경의 사고가 일어나 위령제가 치러졌단 이야기인가?

같은 신문의 6면을 보면 위령제에 대한 궁금증은 해소된다. 기사는 다음과 같다. '지난 23일 오전 10시부터 종합운동장에서 <경북(필자주*당시는 대구와 경북이 분리되지 않았음) 순국학생 위령제>가 성대히 거행되었다. 이날 8위의 영령들을 봉안한 식당에는 수많은 화환이 걸렸으며, 조가 합창, 조사 낭독, 조포, 유가족들의 모습은 4·19 민주혁명 뒤로 민주 학도의 진로를 명백히 지시했다. 본교에서는 고1, 2학생들 전원이 위령제에 참석했으며, 본교 계우회장 최삼량 군은 학생대표로 조사를 낭독했다. 식은 12시가 넘어서 폐회했다.'

체육대회 기사를 계속 읽어본다. '25일 세 시간 수업 후 남편 운동장에서 출발한 마라톤은 경찰 호위차를 선두로 달리기 시작하였는데 마라톤 선수를 따라가는 자전거로 한층 혼잡을 일으켰다. 자랑스러운 것은 중학생들이 끝까지 늠름하게 교문으로 들어서는 장면이었는데, 이를 구경하던 시민들로부터 갈채가 터져나왔다. 마라톤은 고2 이재길 군이 우승태풍(*당시 표현)을 끌었고, 시상식은 4시경 강당에서 거행되었다. 중·고 각 10등까지 등수에 들었고 50등까지는 참가상을 받았다. 각 종목에 걸쳐 입상한 사람은 다음과 같다. (*계원 43호의 100m, 200m, 200m 계주, 투포환, 넓이뛰기 입상자 명단과 중학생 마라톤 입상자 명단은 지면상 게재를 생략합니다.) 고등학생 마라톤 입상자, 1등 이재길(2-1), 2등 이재덕(3-1), 3등 배풍작(3-2), 4등 윤의박(2-8), 5등 김종만(2-2), 6등 박종완(2-4), 7등 이종락(2-2), 8등 이양일(1-6), 9등 이새의(2-3), 10등 신은수(3-6), 교직원 400계주 1등 수학과 김태동 김도년 성제현 서덕수, 2등 외국어과 박지용 김이철



▲ 1960년대 교내 단축 마라톤 광경.

박창석 예영수, 3등 과학과 이지홍 이형두 김도열 김문선, 4등 국어과 서정원 박두표 정재표 이경준, 5등 예능과 박광호 권수보 김병태 이동승.

12면에서 16면에 걸쳐 계성 학교 주최 영남일보 후원의 경북 도내 국민학교(*당시 명칭, 후에 초등학교로 바뀜) 현상문예콩쿨 입작작품이 실려 있다. 49개 학교에서 자체예선 통과 작품을 보내왔는데 운문 268편, 산문 132편 중 모두 22편이 상을 받았다. 김성도 선생님이 대표집필한 심사평은 13-14면에 실려 있는데, 종합 우승학교는 영주 국민학교였다. 입상작품 중 운문부 2등상을 받은 창락초등학교 6학년 김문수 어린이의 "4·19"를 읽어본다. '형님! 형님은 지금 어디서 나를 보고 계세요? 어머니는 매일 같이 울고 계십니다. 형님이 남기고 간/ 책과 가방과 모자는

/ 지금도 책상 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형님은 왜 오지 않으세요?// 4·19 태풍은/ 작년의 사라호보다 더 했습니다. 형님을 빼앗아 갔으니까요.// 그러나 형님/ 꽃이 핀답니다.// 모두들 그러던데요.// 이제 모두 잘 살게 될 거라고요.// 형님이 가꾸시던 꽃밭에도/ 꽃이 피었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글 · 정만진(61회)

* 편집자주

이번 호부터 '계성학교 교내신문 계원(啓園)'을 읽으면서 돌이켜보는 50계단의 추억'을 연재합니다. 1952년부터 발행된 계원은 우리 계성의 자랑스러운 향토교육사, 나아가 한국교육사의 귀중한 사료(史料)입니다.

계원으로 돌이켜보는 50계단의 추억은 우리 계성의 위대한 모습을 다시 한번 생생하게 보여주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원고집필은 정만진(61회, 대구시 교육위원) 동문이 맡기로 했습니다. 학창 시절의 잊지 못할 추억이나 빛바랜 사진을 keisung@keisung.or.kr (총동창회 사무국장 김정길(56회))로 보내주시면 동창회보에 게재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 대 양 수 산

대표

오 창 길 (62회)

대구광역시 달서구 갈산동 산51-11

TEL : (053)584-0506 FAX : (053)584-8162

H.P : 011-509-8196

인물

“남북열차, 평화통일 초석이 되었으면...”



이 재 윤 (56회)
민족통일협의회 회장

“가야 할 길이지만, 오랫동안 갈 수 없었던 길에 오르게 돼서 영광입니다.”

반세기 만에 휴전선을 넘어 운행하는 남북 열차의 티켓을 잡은 이재윤(56회·대구 덕영치과병원 원장) 민족통일협의회 회장은 “회원이 38만여 명에 이르는 가장 큰 통일단체의 대표 자격으로 열차를 탈 수 있게 된 것 같다.”며 “남북 열차가 평화적 통일을 이루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역사적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5월 17일 예정된 남북 열차시험 운행에 탑승할 우리 측 인원은 경의선과 동해선에 100명씩 모두 200명. 이 회장은 동해선에 탑승한다. 행사를 주관하는 통일부는 엄격한 인선 기준을 적용하는 등 탑승자 선정에 애를 먹었다는 후문. 그만큼

였다.

그는 남북 열차 탑승을 계기로 통일에 대한 국민 홍보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민족통일협의회는 북한 주민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통일에 대한 성숙한 국민의식, 통일 이후의 문제에 대한 연구 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늘날에 있어서 민족의 동질성 회복은 우리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문화, 가치기준, 언어, 경제 등 각 방면에서 민족의 동질성이 회복되면 통일은 매우 쉬워질 것입니다.”라고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강조하고 최근 경의선 동해선 철도시범운행을 하는 등 광복한 화해무드를 조성하는데 성공한 통일부

시험운행 탑승, 이재윤 의장 “통일 홍보·북한 주민 지원사업 강화” 민통창설 26주년 기념, 평화와 번영을 위한 민족통일 전국대회 개최

티켓을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했다.

이 회장은 “올해 1월에 두우공장과 인민병원 설립 지원, 어린이 영양제 보내기 사업 등을 협의하기 위해 평양을 다녀 온 적이 있어 ‘북한행’이 낯설지는 않다.”며 “하지만 철도로 북한을 가게 됐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됐다.”고 했다.

또 “남북 열차 운행은 남북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남북한, 일본, 중국을 아우르는 경제협력 체결, 점진적 통일을 이루는 초석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족통일협의회(의장. 이재윤)은 지난 5월 25일 오후 2시 경기도 문화의 전당에서 이재정 통일부장관을 비롯하여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 내빈과 전국 16 시도 협의회 대표 3,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족통일 전국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통일운동 최우수 협의회 시상과 유공자 포상 수여, 내년 전국대회 차기 개최지(경상북도) 발표가 있었다.

이재윤 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남북으로 분단된 지 이미 반세기를 넘은 오

관계자들에게 박수를 보냈다.

이재정 통일부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민통회원이야말로 역사의 희망이고 통일의 희망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전했고, 지난 남북열차 시범운행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본대회가 경기도에서 열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다’며, ‘대북 인도적 사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차원의 대북정책이 중요하다’고 축사를 했다.

검찰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혁신운동

“우수사례 청와대 발표”

김복진 대구지검 총무과 기획계장이 6월 7일 청와대에서 ‘검찰이 민원행정서비스의 중심에 서기까지’란 제목으로 민원·제도개선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노무현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 했다.

김 계장의 발표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민간수준의 질 높은 검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6시그마 도입, 프로 검찰인 운동 등 혁신 활동을 검찰 최초로 실시했다.

대구지검은 또 검찰민원행정서비스 이행 기준을 제정해 검찰민원행정분야의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 노력했다. 특히 통상 주 1, 2회인 사건 배당을 당일



김 복 진 (66회)
(대구지검 계장)

배당제로 바꿨다. 사건 당사자 입장에서 주임검사가 누군지,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가장 궁금하게 여긴다는 점에 착안, 사건 송치 즉시 배당함으로써 주임검사가 당일 지정됐다.

또 고소·고발장, 진정서가 접수돼 배당되면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로 사건번호, 주임검사, 문의 전화 번호를 알려줬다.

더 나아가 방문예약제를 실시해 주임검사가 민원인들의 불만과 하소연을 충분히 들어줘 민원인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였다. 대구지검은 이러한 민원·제도 개선 노력을 평가받아 오는 12월 행자부에서 국무총리상을 받는다.

행정서비스현장 운영평가에서 청도군, 우수기관에 선정

청도군(군수 이원동(53회))이 6월 18일 행정자치부 주관 2006 행정서비스현장 운영 종합평가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군은 보건의료서비스현장 등 12개 현장을 제정, 운영하면서 군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불편, 건의사항 접수, 혁신 아이디어 공모,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 등 군민에게 피부에 와 닿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원동 군수는 “앞으로도 고객 감동 서비스 시책개발과 친절교육 벤치마킹을 지속적으로 가지겠다.”고 말했다.



▲ 좌측에서 두번째 청도군 군수 이원동(53회) 동문.

금 호 텍 스
김 정 호 주 유 소
김 정 호 우 리 옷

대 표

김 원 조 (69회, 총동창회 부회장)

H·P : 011-527-0100

E-mail : callwonjo@hotmail.com

홈페이지 : www.iseomun.com

▶금 호 텍 스 : 경북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 626-25 Tel.(054)333-5214 Fax.(054)337-5216
▶김정호 주유소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1897-4 Tel.(053)656-0100 Fax.(053)656-6560
▶김정호 우리옷 : 대구광역시 중구 대신동 115-379 Tel.(053)422-0921 Fax.(053)252-4895

동아리 소식

제15회 총동창회장기 기별 바둑대회

2007년 5월 20일 계성기우회의 활성화를 위해 박영태(60회) 신임회장을 주최로 2007 계성기우회장배 바둑대회 개인전이 다시 부활 개최되었다.

8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5개부(청룡부, 백호부, 주작부, 현무부, 기린부)로 나뉘어져 열띤 경쟁에 들어갔다. 특히 이달의 하이라이트인 청룡부 결승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가운데 역전에 역전을 거듭 결국 반집승부의 명승부를 연출하고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2007년 6월10일 덕영치과 7층 대강당에서 제15회 계성학교 총동창회장배 기수별 바둑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역대 최다 팀인 18개팀이 참석하여

각 기수의 명예와 승리를 위해 그 뜨거운 열기를 쏟아 부었다.

그날의 대회결과는 다음과 같다.

▷C.B팀-우승: 58회, 준우승: 56회, 공동3위: 54회, 55회

▷O.B팀-우승: 64회, 준우승: 65회, 공동3위: 60회, 59회

▷Y.B팀-우승: 70회, 준우승: 72회, 3위: 71회

※계성기우회원간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 인터넷 바둑사이트 "오로"에 동호회 방을 개설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www.cyberoro.com 으로 접속하시거나 검색창에 "오로"를 엔터하시면 됩니다.



제9회 총동창회장기 기별 등반대회

9회를 맞이한 계성총동창회 기별등반대회가 5월 둘째 일요일인 13일 팔공산 파계사 일원에서 많은 동문, 회원들의 참여속에 실시되었다.

대회는 권영보(62회)의 사회로 김시우(52회) 회장의 대회사, 정인표(56회) 모교 교장의 축사, 김진걸(65회) 동문의 기도와 김명숙(51회, 여성부회장)의 꼭짓점 댄스와 류정웅(48회) 등반대장의 대회 코스 설명을 시작으로 기별 장비점검과 함께 시작되었는데, 파계사 좌측 능선을 따라 성전암과 주능선을 거쳐 파계재, 파계봉을 따라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는 크로스컨츄리의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전체 기수별 22개조(4인 1조)가 선수

로 참여하였고, 응원단 포함 총 380여명의 회원 및 가족들이 모여 축제의 장을 펼쳤다.

폐회식전 뒤편이 마당으로 52회 산우회에서 마련한 시원한 막걸리와 무침회 등으로 기수별 선·후배간의 우애를 다지고 오랜만에 좋은 만남의 장을 만들었다. 오후 3시반에 시작된 폐회식은 기별 성적발표와 폐회선언으로 마무리 되었는데, 이번 대회 성적은 다음과 같다.

▷C.B팀: 1위-51회, 2위-52회, 3위-55회, 모범-53회, 감투-54회, 장려-56회

▷O.B팀: 1위-60회, 2위-61회, 3위-67회, 모범-63회, 감투-65회, 장려-62회

▷Y.B팀: 1위-70회, 2위-72회, 3위-69회, 모범-78회, 감투-75회, 장려-72회



제16회 총동창회장기 기별 테니스대회

화창한 날씨 속에서 제16회 동창회장기 기별테니스대회가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테니스장에서 열렸다.

고등학교 정인표(56회) 교장, 총동창회 김정길(56회) 사무국장을 비롯하여 많은 선후배들이 모여 정겨운 잔치를 열었다. 특히, 올해는 65회 동기회-테니스회가 주관하여 대회를 치루었는데 예년에 비해 푸짐한 상품과 예년에 없었던 풍성한 점심(뷔페)을 준비하여 모든 동문들이 마음껏 식사를 하도록 준비하였는데, 많은 선후배들로 부터 65회의 노고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들었다.

이 모든 것들이 동기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 했다고 생각하고, 바쁜 가운데서도 직접 경기장을 찾아준 동기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스폰서로 지

원주신 구자일 동기회장, 이승화 테니스회단장, 권경훈 고문, 윤오종 부회장, 정재원 고문, 오수희 부회장, 장유석 부회장, 안경석 고문, 천강현 부회장, 정규화 기우회장, 오상달 산우회장, 이정욱 축구회장, 김철순 골프회장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경기 결과는 다음과 같다.

▷C.B팀-우승: 48회, 2위: 54회, 3위: 53회, 최우수 선수: 권혁세, 우수 선수: 홍종길

▷O.B팀-우승: 67회, 2위: 68회, 3위: 65회, 최우수 선수: 김종윤, 우수 선수: 윤석수

▷Y.B팀-우승: 70회, 2위: 69회, 3위: 71회, 최우수 선수: 문부환, 우수 선수: 장영중



■ 재경 계우회

2007년 6월부로 우리 계우회는 249회 모임을 갖게 되었다.

역대 계우회 회장들께서 수고하여 주신 덕분에 지금까지 면면히 이어져 온 우리 계성학교의 골프모임은 전임 회장 이신 김범수(53회) 회장이 2007년부로 김후석(55회) 신임 회장께 바톤을 넘기셨다. 이에 김후석(55회) 신임회장은 더욱 더 즐기는 골프모임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시며 회원 상호간의 발전에 유용한 사업정보 교환 및 인적 네트

워크의 연결에 역점을 두시고 매월 월례회를 주최하고 있다.

우리 재경 계성동문회원 여러분께서 더욱 더 많이 참석하셔서 매년 개최하는 전체 동문 체육대회 및 매월 진행되는 등산모임과 더불어 계우회(골프모임)에도 더 많은 관심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계우회를 다시 한 번 더 안내하고자 한다.

- 계우회 안내 -

1. 개최 골프장: 뉴서울 C.C
2. 월례회 일자: 매월 4째 금요일
3. 티오프 시간: 12시 30분경

4. 회장단 소개: 회장-김후석(55회), 부회장-채용호(57회), 총무-장수익(62회, 011-9091-5290), 경기간사-이근식(65회, 011-9929-2036)

향후 계우회 월례회 및 연말 기별 골프대회에 많은 참석 바란다.

▷연락처: 장수익(62회, 011-9091-5290)

■ 계마회

지난 4월 22일 계마회에서는 비슬산 참꽃 마라톤 대회에 단체로 참가하였다.

이날 계성마라톤회 회원 및 그 가족들을 포함하여 60여명이 하프와 10Km종목에 참가하여 완주하였으며, 완주 후 준비해간 음식으로 거의 잔치 분위기를 즐겼다.

그리고 2008년도 계성 체육대회에 채점이 되는 하반기 공식대회는 2007년 10월 28일 거행되는 경주 동아 오픈 마라톤 대회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계마회는 매월 둘째 수요일 오후 7시에 월드컵 경기장 제2주차장에 모여서 월례회 및 훈련을 하고 있다. 동문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탐방] 계성 OB산우회

1957년 경북학산련 창립, 지방 학생산악운동의 요람

모교 산악부도 서울의 양정고 산악부와 마찬가지로 일제시대 때인 1936년 창립했다. 활동으로 남은 공식기록은 없지만, 학교에 있는 역사관에 당시 등산반이 있었다고 적혀 있다. 3년 뒤인 1939년에 등반하는 모습이 담긴 흑백 사진과 함께 '학교에서 예산 20원을 받아 활동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일제 강점기라 상세한 기록 없이 등산부만 있었다는 정도만 남아있을 뿐 누가, 어떻게 만들었으며, 이후 어떤 등산 활동을 했는가에 대한 공식기록이 없어 모교 산악부의 역사성을 조금 빛바래게 한다.

해방과 6·25 전쟁 등으로 인해 산악 활동 잠복기를 거친 모교 산악부는 1958년 오완섭(48회), 우원기(후에 석훈으로 개명·48회), 강영덕(48회) 동문 등이 재창립의 터전을 닦은 후 1959년 최상복(49회) 동문에 의해 공식적으로 재창립되기에 이른다. 이들이 사실상 산악부 재창립의 일등공신들이었다. 오완섭과 우원기 동문은 고교 산악부 활동뿐만 아니라 지방산악운동의 효시가 된 경북학생산악연맹(57년 창립·이하 경북학산련) 창립에도 깊이 관여해 다방면으로 대구 산악활동에 기여했다. 대한산

악연맹이 1962년 4월에 창립됐으니, 이보다 5년이나 앞서 창립된 것이다.

우원기 동문은 모교에 입학하기 전인 1957년 경북학산련 창립 가을 산행에 유일하게 중학생 신분으로 참가해서 운문산을 종주했다. 그의 생애 일대 전환을 맞게 되는 사건이기도 했다. 그는 이 산행을 계기로 고교에 진학해서도, 대학에서도(서울대 문리대), 사회에 진출해서도 산과 관련된 사업(침낭 등 산악관련 장비용품을 만드는 다나산업 대표)을 계속하고 있다. 산과의 인연만 만 50년이 된 셈이다.

그는 경북학산련 창립활동의 여력을 모교 진학 후에도 계속 발휘하면서 산악부 재창립의 터전을 완벽하게 닦았다. 오완섭 동문과 함께 후배들을 이끌면서 모교 산악부의 중흥을 다졌다. 오완섭 동문은 경북학산련에 가입하고, 우원기, 강영덕 동문 등과 더불어 등산동호인 모임을 만들어 팔공산, 가야산 등으로 다녔다.

그는 산악부가 재창립된 1959년 그해, 한 해 후배인 최상복 동문 등을 이끌고 대구 팔공산에서 열린 제1회 전국 60km 극북 등행대회에 처녀 출전해 분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60km 극북 대회는



▲ 27회 등산부, 1939년 경



▲ 28회 등산부

경북학산련이 주최한 국내 최초의 학생 등산대회였다. 지금은 주최가 경북산악회지만, 초창기엔 경북학산련이 맡았다.

오완섭 동문은 1960년 9월 경북산악회 창립에도 깊숙이 개입했다. 국내 최초 등산학교인 가야산 하계산간학교에 강사로도 참여, 산악기술 전수, 동계 등반시 장비지원, 재정지원 등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대구·경북 지역 산악인들은 학생산악운동의 요람적인 경북학산련, 경북산악회 등을 최초로 만들었고, 또한 국내 첫 등산학교인 가야산 하계산간학교가 전국의 다른 지역 산악운동에 촉매역할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다. 모교 산악부도 그 주축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모교 소식

■ 서문시장 상인을 위한 영어회화 강좌 개강

모교가 서문 시장과 각별한 인연을 맺고 있음은 동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구에서 2011년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가 열리는 것을 계기로 재래시장인 서문 시장에도 많은 외국인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모교가 발 벗고 나섰다.

이 기간을 통해 서문 시장이 국제적인 인지도를 높이고 방문객들이 보다 편안하고 즐겁게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서문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영어회화 강좌를 개설했다.

때마침 모교에는 원어민 교사가 있어 영어과 교사와 한 팀이 되어 일주일에 2회(목, 금 저녁 7시부터 60분) 상인들을 대상으로 '실전 상업영어'를 강의 한다.

서문시장 3500여 개 점포의 주인 가운데 희망자를 대상으로 1개반 30명을 편성하여 실시할 것을 계획하고 6월 14일 저녁 7시 모교 음악실에서 개강식을 가졌는

데 이 날 참석한 상인들은 무려 40명을 넘어 이 강좌에 대한 상인들의 관심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수강료를 무료로 하는 학교 측의 배려뿐만 아니라 시장이 문을 닫는 적당한 시간에 가까운 장소에서 강의가 열린다는 최적의 조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실이 알려지자 대구 KBS 1TV에서는 6월 21일(목) 오후 5시 40분 '행복발견 오늘'이라는 프로에서 이 강좌에 대해 방영했고 TBC TV에서도 6월 22일(금) 5시 40분 "생방송 TBC 투데이-변화하는 서문시장"편에서 방영했다.

또한 6월 13일자 동아일보 지방면에 이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다. 한편 정인표 모교 교장은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상인들 영어회화는 필수죠.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때 시장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한 프로그램"이라며 "2011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상인들이 관심을 가져 주면 좋겠다"고 하며 이 강좌가 호응을 얻으면 반을 더 늘려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 강좌는 음악실에서 영어 원어민 교사 1명을 비롯해 교사 2명이 상인들에게 △간단한 인사 △상품소개 △가격 계산 △길 또는 관광지 안내 등에 필요한 영어를 3개월 단위로 가르칠 예정이다.

모교 교사와 재경지부와의 만남 친선 축구대회, 서울에서 가져

지난 6월 6일 있었던 재경동창회 체육대회에 모교 교사 32명이 참가했다.

이는 지난 해 모교에서 있었던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느라 재경동창회 자체 행사가 없어 이를 아쉽게 생각한 재경동창회가 특별히 모교 교사와의 축구대회를 요청해와 성사된 것이었다.

경기는 체육대회가 열렸던 여의도 국회의사당내 인조 잔디구장에서 전후반 각각 20분씩으로 경기가 치러졌다.

양팀은 전후반 경기를 통해 2:2의 팽팽한 대결을 펼쳐 연장전까지 가졌으나 결국 승부를 내지 못했다.

처음으로 열린 대회라 시작 전에는 다소 어색했으나 양팀은 경기를 통해 우의를 다질 수 있었다는 후문이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모교 및 재경지부 선수명단은 다음과 같다.

▷모교 교사 선수 : 주창식, 장현식, 임성호, 김갑철, 류창열, 최주영, 배각규, 이철, 강병규, 이효우, 신대일, 이형우, 황석동, 김윤태

▷재경지부 선수 : 이시민(70회), 이문희(70회), 신택진(71회), 박영일(71회), 박경원(72회), 권태영(72회), 이병희(73회), 편경현(73회), 이장훈(74회), 차용철(74회), 박준현(75회), 안중현(75회), 유현오(76회), 봉성암(76회)



▲ 여의도 국회의사당내 인조 잔디구장에서 친선축구대회 모습.

■ 유도부

모교 유도부가 5월 20일부터 5월 23일까지 용인대에서 열렸던 '2007 용인대 총장배 전국 남녀 고등학교 유도대회'에서 단체전과 개인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모교 유도부가 전국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거의 십수년 만에 이룬 쾌거다.

동문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유도부는 항상 전국 최강이었으나 최근의 성적은 그렇지 못했다. 더구나 -90kg에서 우승한 3학년 송수근 선수는 2007년 직지컵 국제 청소년 유도대회(청주)에 한국대표로 출전하게 되었다.

■ 농구부

모교 농구부는 잠실학생실내체육관에서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 열렸던 대통령배 농구대회 8강 진출전에서 원주 대성고를 81:60으로 물리친 후 4강 진출전에서 서울 배제고에 81:83으로 아쉽게 지고 말아 4강 진출에 실패했다.

이 대회는 전국대회에서 4강에 입상했던 18개 팀이 나와 승부를 겨룬 대회로 모교 농구부는 3월 13일 있었던 제44회 춘계 전국고교 농구 연맹전에서 3위에 입상한 자격으로 이 대회에 출전했다.

계성동문 축구회 창립 30주년 기념 계성사랑 축구사랑

지난 6월 16일 저녁 프린스호텔2층 리젠시 홀에서 제11회 총동창회장기 기수별 축구대회 개막식 겸 계성동문축구회 창립 30주년 기념식이 성대히 열렸다.

장세환(47회) 총동창회 부회장, 정인표(56회) 모교교장, 김성길(56회) 동창회 사무국장, 임병현(60회) 남구청장, 특히 향토축구계 원로이신 이주녕(36회) 동문께서 참석하여 자리를 더욱 빛나게 했다.

그리고 양현석(58회·대구농구협회 부회장), 이인기(59회·국회의원), 성배기(59회·재포동문회), 이정현(61회·대구 생체협축구협회장), 특히 모교축구선수 출신인 오세권(63회·전국축구협회 기술이사), 유태목(64회·일화프로축구단), 정종관(64회·청평공고 감독) 등이 보내준 화환은 식장을 더욱 환하게 했으며, 김익환(56회·동창회 부회장)동문은

축전을 보내 격려했다. 김경모(65회) 계성동문 축구회 회장인사로 시작하여 장세환 동창회부회장의 “모교축구부 재창단의 필요성”을 강조한 격려사, 이주녕 원로의 “계성축구 야화”, 정인표 교장의 “운동부 관리에 대한 제반 문제에 대한 학교 측 입장”과 축하 인사에 이어, 임병현 동문의 “행복한 밤 되세요.”라는 단출한 축사로 분위기를 더욱 무르익게 했다.

창립 30주년을 맞은 계성동문 축구회는 1977년 4월 16일 모교 운동장에서 당시 3학년 재학생과의 친선경기를 시작으로 창단되어 30여 년간 모교 축구부 재창단을 목표로 재학생 축구대회, 4개 대학 축구대회, 총동창 회장기 기수별 축구대회 등 여러 대회를 열어 계성을 사랑하고 축구를 사랑하는 모토를 몸소 실천하는 동창회 모임으로 거듭났다.

이어 6월 17일 무태동 소재 강변잔디

축구장에서 69회부터 78회까지 10개 기수들이 모인 가운데 제11회 총동창회장기 기수별 축구대회를 성대히 치렀다. 날씨도 구름이 햇볕을 가려줘 축구하기 좋은 날씨였다. 예선 조별 리그를 거쳐 70회, 71회, 75회, 76회가 4강에 올랐다. 70회와 71회가 대망의 결승을 치렀는데 접전 끝에 전후반을 1:1로 마쳐 규정대로 연장 없이 승부차기로 우승팀을 가렸는데, 70회가 5:4로 가까스로 71회를 물

리쳐 동창회장기를 안았다.

16, 17일 양일간에 걸쳐 치러진 이번 행사에 약 300여 동문이 참석 30년간 지속되어온 계성동문축구회의 저력을 보여준 알찬 행사였으면 앞으로도 축구부 부활과 모교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계성동문 축구회가 될 것을 약속했다.

대회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승 : 70회, 준우승 : 71회, 공동3위 : 75회, 76회



지 부소식

재인도네시아지부 창립 골프대회열어 단합피해

재인니 계성동창회는 인니의 30년 한 인역사에 비추어 충분히 결성되었을 것임에도 그 동안 알음알음 계성인 간 연락하고 지내는 수준에 그쳤는 바 정식 동창회 형태의 모임이 없어 필요성을 절감하던 중 회장으로 추대된 김성환(63회) 동문이 지난해 현지로 발령받은 후 교민지를 통해 광고를 하자 어느 동문의 표현을 빌자면 발기인 대회를 앞두고 잠을 설칠 정도로 졸업 후 30여년 만에 계성이라는 이름을 이역만리 타국에서 다시 떠 올리게 되어 너무 좋았다고 한다.

이곳은 기후 등 여건상 다른 형태의 모임은 가질 수 없고, 정기 모임시 골프대회로 대체하기로 했으며, 본국의 동문들이 방문시 짝수월 첫째 토요일이 정기모임일이므로 이 기간을 활용할 경우 동반라운딩을 지원해주기로 하였다.

창립총회 체육대회는 참석자 8명이 2개조로 나누어 라운딩을 했는데 역시 구력과 재력(?)에 비례하여 김기인(58회) 동문이 우승을 하셨는데, 67회 모 동문은 티칭프로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선배님의 심기를 고려해서 하향조정(?)을 하신 것 같아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체육대회후 시내 음식점에서 저녁겸 적당한 음주로 회포를 푸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취기가 오르자 드디어 고교동문회의 분위기가 살아나기 시작했다. 김기인 동문은 그동안 인니에 생활하면서 고교동문회가 아닌 대학 동문회에만 참석하다보니

선후배가 존대어를 사용하여 불편하고 동문회 같지 않았는데 고교동문회는 말을 편하게 할 수 있어 좋으며 앞으로는 선배가 후배들에게 말을 트고 지내겠다고 선언하시면서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어 형, 동생의 화기에애한 모습들을 연출했다. 그리고 각자 준비해온 자사제품으로 선물 겸 부상을 나누어 가졌다.

그래도 역시 당일 행사의 압권은 교가 제창이었다. 외국인도 많이 드나드는 식당에서 8명의 계성건인들이 우렁차게 앞에 섰는 것... 하는 순간 모두들 이역만리 땅에서 교가를 부르게됨에 감격한 탓인지 목소리는 더욱 커졌고, 누구라고 할 것없이 자연스럽게 한 번 더 부르는 상황까지 연출되었다.

우리의 자랑인 계성아... 우리의 고성에도 불구하고 식당주인은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이라며 연신 덕담을 건넸다. 어깨동무를 하며 식당문을 나서며 우리는 계성인으로 적도의 나라 한모퉁이 자카르타의 밤하늘을 수 놓았다. 다음 모임부터는 반드시 여우(?)님과 토끼들을 데리고 나와야 한다는 것을 취기 가운데에서도 기억해주시기를 귀가하시는 회원들 들어껴내며 크게 부르짖었다. 선배님들은 저를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하는 총무라며 격려했다. 감사합니다.

재인니임원은 다음과 같다.

▷고문 : 이희락(55회, 한국도자기 현지법인 대표), 김기인(58회, 기계업), 이현식(58회, 섬유), 회장 : 김성환(63회, 한국도로공사 인니본부장), 총무 : 박화진(69회, 주 인니대사관 파견 경찰영사 총경), 회계 : 김경중(72회, 의료기제조업)

차장현(65회) 동문이 컴퓨터대가이신데 우리 인니동창회의 카페를 개설하였다.(카페주소 : 재인니 계성동창회: <http://cafe.naver.com/ksindonesia>)



▲ 좌측으로 부터, 최상록(65회), 이희락(55회), 김기인(58회), 박화진(69회), 김성환(63회), 차장현(65회), 문병순(67회) 동문.

◆ 재포지부



2007년 6월 6일 포항시내 대동고등학교(교장 김현호, 43회) 실내 체육관에서 제15회 포항지부 계성동문 가족체육대회가 정형용(35회) 원로 동문으로부터 강문중(76회) 막내 동문에 이르는 약 230여명의 동문들과 가족이 참석하여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제1부 개회식은 포항지부 송종영(52회) 회장의 대회사와 계성중학교 손용식(60회)

교장의 격려사에 이어 정형용(35회) 원로 선배의 60여년 전 학창시절을 회고 하면서 열창하신 산타루치아 독창에는 참석자들의 기립 박수가 쏟아졌다.

제2부 정기총회에서는 향후 2년 임기의 이성형(52회) 동문을 회장으로, 예병렬(57회) 동문을 비롯한 11명의 부회장단과, 사무국장에 정대연(61회) 동문을 비롯한 5명의 총무단 및 류효일(55회) 동문과 정제일(58회) 동문 등 2명의 감사를 동문들의 만장일치로 선출하였다.

제3부 체육대회에서는 배구경기에서 예병렬(57회) 동문의 녹슬지 않은 점프 스퀘어와 족구경기에서 55세의 나이를 무색하게 하는 송동영(59회) 동문의 다이빙 킥 묘기에는 참석 동문들의 탄성이 연발되기도 하는 등 선 후배가 한데 어우러져 일상의 피로를 씻어내고 활기찬 내일을 기약하고 동문간의 우의를 다지는 귀중한 하루를 보내고 내년을 기약하며 작별 하였다.

기 별소식

◆ 제52회

△회장 : 장명익

△총무 : 이상규

지난 5월 27일(일) 예천군 학가산 우레자연휴양림에서 52회 야유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모임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더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지는 못한 것이 아

쉽기는 하지만 서울에서 명철열 회장, 한상열 총무 조병대 재무 등 37명과 5명의 부인들... 모두 42명, 대구에서 본인과 이상규 총무의 건들바우식당 직원 1명, 서창국 수석부회장(차기회장) 등 35명과 부인들 5명 등, 모두 40명이 참석하였고, 원주 이종국 회원, 계성 총동창회 산우회 편집국장 정인재(55회), 구본학(55회) 예천부군수 외2명 등 3명, 총 88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가 성황리에 치루어졌다.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고 자발적으로 곳은 일들을 마다 않고 맡아서 이 날의 행사를 차질 없이 치를 수 있게 봉사하신 이

상규 총무, 이종덕, 최상철, 최연호, 안상태, 이국세 동기 등등과 김시우 총동창회 산우회장의 진두지휘, 정하룡 전회장의 비디오 촬영, 정인재(산우회보 편집국장) 등등, 많은 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제54회

△회장 : 정대현

△총무 : 김동철, 최정대

5월 5일 경남 통영, 거제시 일원에서 동기회 봄 야유회 행사를 가졌다. 동기 66명이 참가하여 화기에애한 가운데 하루를

즐기고 무사히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이날 동기회 촬영감독 우진권 동문이 종횡무진 활약하여 수많은 사진과 동영상을 동기회 사이버카페 방명록에 탑재하였다.

4월 20일 마태회가든에서 '2007년 제2차 이사회 회의'를 가졌다. 30명의 동문이 참석, 논의 결과는 제1안 야유회 개최, 제2안 '2008년 계성학교 54회 동기회 전국구 합동 큰돌(환갑) 잔치 추진위원회', 구성은 6월에 전임회장들 중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 2008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 제55회

△회장 : 김태호

△총무 : 박수향

2007년도 정기총회가 3월 23일 저녁 7시 이천동 가덕구이에서 40여명의 동기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치루어졌다. 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가운데 식순에 의거 2006년도 행사보고 및 결산보고와 경과보고 감사보고에 이어 신입회장단 선출 등... 순서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날 2007년도 동기회를 이끌어 갈 새로운 회장에 모교에 체육교사로 재직중인 김태호 동기를 추대하고 총무는 박수향 총무가 연임하기로 하였고 감사에는 안영호동기와 두분이 수고해 주기로 하였다.

식이 끝난후 신입회장의 배려로 이루어진 2차 뒤풀이는 가덕구이 인근에 있는 노래방으로 가서 김종옥 회원의 사회로 회원들의 노래솜씨를 한껏 뽐내보고 질펀하게 한잔 마시는 걸로하여 2007년도 정기총회의 대미를 장식 하였다.

◆ 제56회

△회장 : 이성태

△총무 : 최돈문

지난 4월 20일 대가한정식에서 전·현직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였다. 5월 13일 총동창산우회 기별등반대회에 백봉산악회가 참가하여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6월 10일 총동창회 기별바둑대회에 김주건, 김타열, 이경우 이재운, 이충로가 참가하여 C.B부 준우승을 차지하였다.

◆ 제58회

△회장 : 이재전

△총무 : 김은홍, 이승현

지난 4월 29일(일) 충북 괴산군 화양구곡 금사담(청주식당)에서 41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기회 춘계야유회를 가졌다.

작년에 성남 살다가 고향으로 컴백한 유영준내외, 몇 년 만에 얼굴을 보게 되는 김동진, 동기회 행사에 처음으로 동부인한 강병현 서로 반가운 인사들을 나누고 9시경 모두를 태운 버스는 화양계곡을 향해 출발한다.

첫 휴게소를 지나 영준이가 마이크를 잡고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윤경환이가 보내준 회를 안주 삼아 소주 한 박스와 맥주 한 박스를 다 비우고 차가 멈출 때까지 신바람 노래방은 끊이지 않았다. 12시 반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식사를 서둘러 하고는 1조는 도명산으로 2조는 계곡을 따라 산천 유람을 나눴다.

화양3교에 있는 침성대에서 출발하여 정상에 올라서니 발아래 펼쳐있는 조록과

갈색이 어우러진 산천의 모습이 한 폭의 비단을 깔아놓은 듯 아름답기 그지없었다. 금사담 맑은 물가에서 삼겹살에 막걸리 한 잔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18시에 대구로 향했다.

◆ 제63회



△회장 : 안승철

△총무 : 이종원, 이성율

지난 5월 27일(일) 계룡산(동학사쪽) 랑데브 가든에서 51개팀 80명이 참가하여 동기회 지부연합 등반대회를 개최하였다. 전국에 있는 동기생들이 1년에 한번쯤은 한자리에 모여 근황을 확인하고 서로 간에 친목을 도모하자는 취지 아래 우리는 계룡산에서 모였다.

계룡산 동학사쪽 주차장에서 대구, 서울, 대전에 있는 친구들이 반갑게 만나 간단한 이야기와 기념촬영을 하고는 대전지부에서 준비한 음료수와 오이를 받고는 바로 등산을 시작하였다.

2시간 30분 정도의 등산을 하고 랑데브 가든 식당으로 가서 시원한 생맥주로 목을 축이고는 1부행사-2부 행사를 하였다. 2부행사에서는 정원각 동기의 사회로 재미있는 여흥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행운권 추첨을 통해서 준비한 많은 상품을 수여하고는 손에 손을 잡고 '만남'의 노래를 부르면서 아쉬운 석별의 정을 나누었다. 마지막으로 교가를 힘차게 부르고 다음 동기회 행사때의 만남을 기약하면서 헤어졌다.

오늘의 행사를 위해서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은 동기들께 감사의 인사를 하고 싶다. 특히 사전준비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준 고수환, 도기득(음식), 이성율, 이윤하(접수), 김재룡, 이상준, 이탁, 이세탁(시설), 이일우, 장중국(사진촬영), 정원각(2부사회), 사전답사 및 지원(대전지부 동기), 먼길 달려온 서울동기들, 건강하고 젊음을 유지하고 있는 사모님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 제65회

△회장 : 구자일

△총무 : 서태교

5월 27일 문경 CC에서 65회 골프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65회 문경CC 기수모임은 5개월에 걸친 준비와 사전 답사를 통해 이루어낸 거의 완벽한 가까운 모임이었다.

먼저 이 모임을 선두 지휘한 구자일 회장, 재경 박해식 회장, 이번 모임을 기획하고 참석인원과 시상, 스폰서, 차량, 모든 일정을 거의 홀로 준비 하다시피한 서태교 수석 총무께 전 동기의 이름으로 깊은 감사를 드린다.

대구와 서울을 비롯하여 대전, 당진, 울산, 포항 심지어 배한태 동기는 일본에서 친구들과 함께 하기위해 현해탄을 건너왔다. 다른 기수에서 상상도 할수없는 65회만이 가능한 이번모임은 지난해 개교100주년 종합 우승시 이미 가능성을 열어 두었고 수년전부터 육오회라는 이름으로 동기 골프 모임이 전국적으로 꾸준히 이루어져왔기에 가능 했다고 여겨진다.

운동을 마치고 행사장에 준비된 각자의 명찰이 놓여진 테이블에 앉는다. 서태교 총무의 사회로 진행이 되었고, 구자일 회장의 인사말과 박해식 재경 동기회장의 격려사에 이어 동기 및 부인의 소개를 김진걸 총무가 맛깔스럽게 하였다. 동기 소개후 나누어준 상반기 동기행사및 활동사항은 유인물로 대처하였고 중요한 행사내용은 서수석이 브리핑하였다.

시상식은 이근식 경기 위원장이 진행하였으며, 우승은 김명구 고문이 하였고 나머지 수상자는 동기회 홈페이지에 공지하였다. 9시가 조금 넘어 모든 행사는 종료되었고 아쉬움에 친구들은 서로 부둥켜안고 놓을줄 모르고 다음에 다시 만날것을 다짐하며 목적지를 향한 차에 올랐다.

◆ 제67회



△회장 : 공정섭

△총무 : 장동식

지난 5월 27일(일) 오전 10시부터 모교 운동장에서 가족 동반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 제69회

△회장 : 방용석

△총무 : 김종율, 김도균, 신승철

2007년도에는 「모교 홈커밍데이」행사가 있는 관계로 매월 첫째 금요일에 수성

구 '제주어촌'에서 반 별로 반창회를 실시하여 동기들간에 좋은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다.

5월 13일 총동창산우회 기별 등반대회에 10명이 참가하여 YB팀 3위에 입상을 하였으며, 6월 6일 재경체육대회에 16명이 서울에 입성하여 줄다리기 1등 하는데 큰 힘을 실어주었다. 6월 17일 총동창회장기 기수별 축구대회에 20명이 참가하여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7월 중에는 69회 홈커밍 소식지가 발간될 예정이다.



◆ 제70회



△회장 : 서영태

△총무 : 이익동, 신대수, 김종직

지난 5월 6일 모교 대강당에서 동기 및 가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가족축제 한마당" 행사를 실시하였다.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전에는 전문팀 초청 "태보공연 및 배우기", 마술팀 초청 "마술공연", "페이스페인팅", "풍선만들기 공연 및 따라하기"등의 행사를 진행하였고 점심식사후에는 청백팀으로 나뉘 본 격적인 게임을 펼쳤는데 피구, 족구, 풋살 등 게임으로 동기들간의 자웅을 겨루기도 하였다.

오전 9시에 시작된 행사는 오후 4시경 "놀이한마당"으로 끝을 맺고 폐회식에 앞서 행운권 추첨이 있었는데 50만원 상품권이라는 커다란(?) 상품에 모든 동기들이 숨을 죽이고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만 했다.

또한 70회 동기회는 7월13일부터 7월 15일까지 2박3일간 감포 오류해수욕장에서 가족휴양지를 운영할 계획인데, 동기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모든 편의 및 식사 제공을 할 예정이다.

인물정



▷신일희(44회) 재단법인 5·16민족상(이사장 김재춘)은 42회 '5·16민족상'의 교육 부문 수상자로 신일희 계명대학교 이사장을 선정했다고 5월 8일 밝혔다. 시상식은 5월 1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 서울호텔에서 열렸다.



▷박용규(44회) 지난 4월 27일 대구 삼덕교회에서 개최한 대구·경북 기독교문인회 정기총회에서 박용규(영남일보 논설고문)를 제2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또 이날 총회에서 회지 발간 등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정충영(45회) 대구도시가스(대표 정충영(45회))는 6월 27일 저소득층 등에 대한 에너지 복지를 확충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한국에너지재단에 2억8천만원을 기탁했다. 대구도시가스 계열사인 경북도시가스도 이날 한국에너지재단에 5천200만원을 기탁했다.



▷신현수(45회) 안동의료원 원장은 5월 11일 병원 대강당에서 입원 중인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지친 심신을 위로하고 쾌유를 비는 '사랑 나눔 환자 위안의 밤' 행사를 열었다.



▷이승한(52회) 삼성테스코 사장이 4월 11일 오후 3시 영남대 상경관에서 '창의 경영 이야기'를 주제로 특강을 하였다.



▷송승영(52회) 6월 13일 국제로타리 3630지구 남포항 로타리클럽 제26대 회장에 취임하였다.



▷손수상(54회) 계명대 동산의료원장은 최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암학회 정기총회에서 학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고재목(54회) ㈜진명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CEO로 취임하였다.

▷김영환(54회) 지난 5월 1일 한국건설경영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취임하였다.

▷이인석(54회) ㈜대명진흥개발 전무이사로 취임하였다.

▷임상규(56회) 대구 경인제약 대표는 작년 12월부터 실시한 탈모 방지 및 발모 촉진제 무료 체험이벤트를 실시했다.

경인제약이 무료 체험 행사를 시작한

것은 지난 1996년부터. 품질평가단을 통한 '임소문 마케팅'이 위력을 발휘, 지금까지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제품을 사용했다는 게 임사장의 전언이다. 이 회사는 다음달부터는 잇몸질환기능식품에도 고객 무료 행사를 갖기로 했다.



▷배창식(56회) 공군 작전사령관에 재직하고 있는 배창식 장군이 4월 26일(목) 오전 11시 오산 공군작전사령부에서 전역식을 가졌다. 공군사관학교를 포함 근 40년의 공군생활을 마감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배장군에게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날에 축복이 있기를...



▷서진원(56회) 신한금융지주는 최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를 열어 신한생명 사장에 서진원 신한지주 부사장을 선임하였다.

▷이규석(56회) 계명대 동산병원 피부

과 교수는 최근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제17차 대한광의학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됐다.



▷**황기철**(56회) 중국 요리 관광전문식당 자금성이 5월 3일 전국 일반음식점 중 최초로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았다. 자금성은 ISO 9001 인증으로 서비스 신뢰와 기업 이미지에 향상은 물론 품질 및 식품 안전관리 체제 유지 등으로 능률 향상과 식품 안전에 대한 자신감을 확보하게 되었다.



▷**김익환**(56회) 대구예술평의회 회장은 지난 6월 13일 우봉아트홀에서 대구예술평의회 제16회 「예술가곡의 밤」을 개최하였다.

▷**김주동**(56회) 대구대 경영대학원장은 대구대학교에서 박근혜 한나라당 전대표 초청 강연회를 5월 31일 개최하였다.

▷**이정권**(57회) 한영한마음아동병원장은 '대구·경북소아청소년과' 지회장에 선임됐다. 대구·경북소아청소년과 개원의 협의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 회장은 1년간 지회를 이끌어갈 예정이다.

▷**하상오**(58회) 부산 동아대학교 예술대 산업디자인학과 교수로 오랜기간 재직해 오고있는 하동문이 겸임으로 부산디자인단체 총연합회 초대회장으로 취임하였다.

부산디자인단체총연합회는 부산지역 20개 디자인관련단체 1,200여명의 디자인사로 구성된 법인단체로 4월 10일 창립대회를 앞두고 준비중에 있으며 부산디자인센터내에 사무국을 두고 부산지역의 디자인 활성화를 목표로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우정구**(58회) 매일신문 경영지원국장은 4월 12일 대구은행 대구 계산동지점의 제6대 명예지점장으로 위촉돼 이날 백용선 본부장으로부터 위촉패를 전달받았다. 우 국장은 향후 1년동안 대구은행 명예지점장으로 각종 대내외 활동을 하게 되었다.



▷**윤석용**(58회) 윤동문은 한나라당 2차 중앙장애인 위원장에 당선되었다.



▷**이용두**(58회) 대구대 총장은 '고종의 서양인 전의(典醫) 예비슨 박사의 눈에 비친 구한말 40여년의 풍경'을 출간했다.

전 대구대 이태영 총장이 발굴해 1984년 '구한말 비록'이란 제목으로 출간된 것을 지난해 개교 50주년을 맞아 회고록 원문 전체를 번역하고 재편집해 이번에 재출간하게 됐다.



▷**김동규**(58회) 영남대 스포츠과학부 교수는 4월 7일 영남대 국제관에서 열린 2007학년도 대구·경북체육학회 춘계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이상태**(58회) 5월 30일 대한유도회 2007년 정기 승단심사에서 가장 젊은 나이로 8단에 승단하였다. 학창시절에 전국대회 개인전과 단체전 우승한 경력도 갖고 있다.

▷**이재열**(59회) 4월 2일자 대구신문 편집국장으로 취임하였다.

▷**최영삼**(59회) 국정원 대구지부장에 취임하였다.

▷**최칠암**(61회) 우리은행에 근무하고

있는 최동문이 대구·경북 본부장으로 취임하였다.



▷**이강일**(61회) 계명대 교수의 트럼펫 리사이틀이 5월 11일 오후 8시 계명대 대명동 캠퍼스 대강당에서 열렸다.

공연 프로그램은 로시니 '방금 들린 그대 음성', 베르디 '라 트라비아타 환상곡', 벨리니 '정결한 여신', 헨델 '주께 감사하라'와 '올게 하소서', 모차르트 '사랑의 괴로움을 그대는 아는가', 도니체티 '남 몰래 흘리는 눈물', 푸치니 '오 나의 그리운 아버지', 드보르자크 '달에게' 등으로 연주했다.

▷**곽우섭**(62회) 스타리스(주) 전무이사에서 CNH Capital(주)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김영대**(63회) 금융감독원 총괄조정국 복합금융감독실의 실장으로 승진하였다.

▷**김종학**(63회) 대구MBC 경영국 총무부장에서 대구MBC 보도국 편집부장으로 영전하였다.

▷**류재보**(63회) 국방대학원에서 인천지방 조달청장으로 전보 발령받았다.

▷**박성호**(63회) 창원대학교 교수로 재직중 교무처장으로 임명되었다.



▷**손중배**(64회) 대구상공회의소는 4월 6일 오전 상의 대회의실에서 '임시의원 총회'를 열어 손중배 (주)유레카 대표을 대한상공회의소 신임 상임의원에 선출하였다.

▷**이승화**(65회) 총동창회 부회장은 베트남 공장을 준공하였다.



▷**김병진**(65회) TBC 방송국 본부장으로 있던 김 동문이 (주)한국 우사회 부사장으로 취임 발령받았다.

▷**정재관**(65회) 정 대령이 지난주 대전 육군본부 정책홍보실로 전보 발령받았다.

▷**김두영**(66회) 국민은행 침산동지점장으로 승진하였다.

◆ 축하드립니다.

▷**김태경**(46회) 자녀 결혼(5/13)

▷**임덕치**(48회) 자녀 결혼(4/7)

▷**이수팔**(52회) 차남 결혼(5/19)

▷**신상민**(52회) 장녀 결혼(4/26)

▷**전병준**(53회) 장녀 결혼(5/12)

▷**백광홍**(53회) 장남 결혼(5/12)

▷**손태암**(53회) 장남 결혼(3/24)

▷**서주영**(53회) 차녀 결혼(6/17)

▷**박우희**(54회) 장녀 결혼(5/11)

▷**이성고**(54회) 장남 결혼(5/12)

▷**한명로**(54회) 장남 결혼(5/19)

▷**이회술**(54회) 장남 결혼(5/26)

▷**이명덕**(54회) 장남 결혼(6/16)

▷**박윤규**(54회) 장남 결혼(7/7)

▷**손수상**(54회) 장녀 결혼(7/7)

▷**윤용수**(54회) 장남 결혼(4/21)

▷**박기창**(54회) 장녀 결혼(4/28)

▷**장광수**(54회) 장녀 결혼(4/21)

▷**김한식**(54회) 장녀 결혼(5/5)

▷**이회술**(54회) 장남 결혼(5/26)

▷**최차영**(54회) 장녀 결혼(6/2)

▷**이상한**(54회) 차녀 결혼(6/9)

▷**이성희**(55회) 장녀 결혼(4/21)

▷**김홍용**(55회) 장남 결혼(4/28)

▷**박태인**(55회) 장녀 결혼(6/9)

▷**윤성태**(55회) 장남 결혼(6/16)

▷**신경찬**(55회) 차녀 결혼(7/1)

▷**문상화**(56회) 자녀 결혼(5/26)

▷**정재윤**(56회) 장녀 결혼(4/14)

▷**김정국**(58회) 장녀 결혼(5/6)

▷**서성규**(59회) 장녀 결혼(4/7)

(주)서린 서주영(53회) 대표 제42회 발명의 날 동탑산업훈장 수상

모교 53회 서주영 [(주)서린 대표] 동문이 지난 2007년 5월 18일 제42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기술개발로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동탑산업훈장을 수여받았다. 이는, 제조업, IT업종에 산업훈장을 수여하는 관례를 깨고,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의 기술개발 노력 및 경쟁력을 인정받은 쾌거이다. 또한, 현대모비스(주)[금탑산업훈장]와 (주)서린[동탑산업훈장]이 우수기술개발 사례발표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얻어 1,000여명의 특허청, 귀빈인사 앞에서 발표를 하여, 엔지니어링 업계의 끊임없는 기술개발 노력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주)서린은 기업부설 연구소를 운영하여 건설 신기술 개발 및 국가 R&D분야에서도 발전적인 자세로 연구업무 수행 중에 있다.

건설엔지니어링 업체가 동탑산업훈장 이상을 수여받는 것은 최초이며, FTA 및 급변하는 경제상황에서 발전적이며 진취적으로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주)서린(www.seorin.com)은 보다 나은 진취적인 기술개발 및 지속가능한 기술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 ▷**곽광환**(59회) 장녀 결혼(5/24)
- ▷**황인규**(59회) 장남 결혼(5/12)
- ▷**이동철**(59회) 차녀 결혼(5/12)
- ▷**김무진**(60회) 지난 5월 12일 부천 원미구 중동에서 예사랑 실버의원을 개업하였다.(H.P : 010-3975-7576)
- ▷**이호상**(61회) 장녀 결혼(5/12)
- ▷**김영일**(61회) 자녀 결혼(5/17)
- ▷**석재호**(61회) 장녀 결혼(5/12)
- ▷**송시원**(61회) 3월 22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 신세계백화점 죽전점 내 주차 별관 1층(지상)에서 「일리아(플라워 뷰티)」를 개업하였다.(031-695-1546, 011-724-2711)
- ▷**정창규**(62회) 차남 결혼(4/21)
- ▷**김동수**(62회) (주)유정식품 공장 증축을 완료하고 준공기념식을 가졌다.(경기 안산시 몽래동 450-1번지. 반월공단 15블럭 14-1롯데. www.yujungfood.com)
- ▷**장영곤**(62회) 3월 19일 강남구 역삼동 풍림빌딩 아케이드 106호에서 「풍림부동산」을 개업하였다.(02-556-8588, 011-9729-6996)
- ▷**권태호**(63회) 오현광물 연구소를 개소하였다.(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90-1 SK 테크노파크 비즈동 1203호 031-776-0071)
- ▷**임형준**(64회) 장녀 결혼(6/29)
- ▷**임익선**(65회) 대명동 계대 정문 근처에서 '락 간미나 :와인 저장고'라는 와인 SHOP을 오픈하였다.(☎053-654-4412)
- ▷**박장하**(81회) 대구 남구 명덕네거리(프린스호텔 우측 100m지점)에 '오스트리아-벤들롱 피아노' 대구지사를 개사하였다.(053-653-0005, 010-9076-5714)

◆ 참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박래영**(31회) 별세(4/25)
- ▷**최 명**(49회) 별세(5/3)
- ▷**김제원**(49회) 모친상(5/13)
- ▷**임병열**(53회) 모친상(4/30)
- ▷**양창규**(54회) 모친상(4/14)
- ▷**정위택**(54회) 모친상(4/14)
- ▷**김장열**(54회) 모친상(4/30)
- ▷**손준호**(55회) 장인상(4/8)
- ▷**권근범**(55회) 부친상(4/19)
- ▷**한관태**(55회) 부인상(4/23)
- ▷**여영택**(56회) 부친상(4/8)
- ▷**김강수**(58회) 별세(3/24)
- ▷**이종갑**(58회) 모친상(3/29)
- ▷**서명호**(58회) 장모상(4/18)
- ▷**김철민**(58회) 장인상(5/23)
- ▷**장영강**(58회) 부친상(5/26)
- ▷**신성조**(58회) 모친상(5/26)
- ▷**박영우**(59회) 부친상(4/1)
- ▷**추용길**(59회) 별세(4/8)
- ▷**김형우**(59회) 부친상(5/8)
- ▷**임학상**(59회) 부친상(5/24)
- ▷**이종진**(61회) 별세(3/31)
- ▷**김대현**(61회) 별세(4/9)
- ▷**이상곤**(61회) 부친상(5/13)
- ▷**김용근**(61회) 부친상(5/23)
- ▷**임유상**(61회) 부친상(5/24)
- ▷**남영철**(61회) 장인상(5/29)
- ▷**박충호**(61회) 모친상(6/13)
- ▷**강석화**(62회) 모친상(4/25)
- ▷**고진석**(62회) 별세(5/3)
- ▷**신삼수**(62회) 장모상(3/25)
- ▷**정광유**(62회) 부친상(5/13)
- ▷**윤일현**(63회) 모친상(3/24)
- ▷**윤만용**(63회) 부친상(4/8)
- ▷**서보관**(63회) 별세(4/7)
- ▷**강구정**(63회) 부친상(4/26)
- ▷**오채환**(63회) 장인상(5/1)
- ▷**김일권**(63회) 장모상(5/25)
- ▷**장경호**(63회) 부친상(5/29)
- ▷**성창수**(64회) 부친상(6/3)
- ▷**최원현**(64회) 부친상(5/24)
- ▷**이기량**(64회) 부친상(5/17)
- ▷**김병동**(64회) 부친상(3/28)
- ▷**이신의**(64회) 모친상(3/10)
- ▷**이상곤**(65회) 모친상(3/27)
- ▷**장규호**(65회) 빙모상(4/18)
- ▷**김경모**(65회) 부친상(4/20)
- ▷**강구태**(65회) 부친상(4/26)
- ▷**송광하**(65회) 부친상(5/3)
- ▷**최철우**(65회) 빙부상(5/21)
- ▷**서기한**(65회) 모친상(5/24)
- ▷**오수희**(65회) 부친상(5/28)
- ▷**이태만**(65회) 부친상(6/14)
- ▷**김극환**(66회) 부친상(5/11)
- ▷**이규백**(67회) 모친상(3/28)
- ▷**권대윤**(67회) 부친상(4/4)
- ▷**배한윤**(67회) 부친상(4/16)
- ▷**김하식**(67회) 빙부상(4/29)
- ▷**오동준**(67회) 빙부상(5/8)
- ▷**백윤욱**(67회) 모친상(5/13)
- ▷**인병근**(68회) 부친상(3/26)
- ▷**신승철**(69회) 부친상
- ▷**김진영**(69회) 장인상(3/22)
- ▷**장원경**(69회) 부친상(5/14)
- ▷**심규호**(69회) 모친상(6/10)
- ▷**이민석**(69회) 모친상(6/9)
- ▷**신진호**(70회) 장인상(3/14)
- ▷**김왕진**(70회) 장인상(3/22)
- ▷**김태훈**(70회) 부친상(4/7)
- ▷**곽근수**(70회) 부친상(6/6)
- ▷**이상철**(74회) 부친상(5/4)

동문시단

제22회 상화시인상 수상작

초록교신

권국명 (47회)

초록과 초록으로 이어진

끝없이 은밀한 길이 나의 내부에 있다.

처음에는 내 손끝에서 자잘한 풀잎으로,

다음은 내가 가지를 뺀

앵두나무와 대추나무발을 지나

오월 넓은 하늘에 가 닿는다.

앵두나무 하늘에는

앵두나무꽃이 그린 기호,

지금 막 태어난 어린 아해 같은 싱싱한 말이 있어

물 없고 바위와 모래뿐인

물 없고 바위와 모래뿐인 도시,

물 없고 바위와 모래뿐인 도시에서

이 초록의 길을 따라 나가

아주 먼 우주 저쪽에 살아 있는 너에게

초록의 말로 교신할 수 있으리.



- 1942년 경북 고령 출생
- 경북대 인문대 국문과 졸
- 현대문학 추천
- 시집 『그리운 사람 돌아와 있으리라』, 『으능나무 금빛 몸』
-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권국명(47회) 동문 상화시인상 수상
수상작 제3시집 『초록교신』

대구가톨릭대학교 인문대학 국문과 교수로 재직중인 권국명(47회) 동문이 지난 5월 22일 오후 5시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카페 스타지오」에서 죽순문학회(회장 송영목)가 주관한 제22회 상화시인상을 수상했다.

상화시인상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이상화(1901~1943)시인을 기리기 위하여 1986년에 제정된 상으로 전국적인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상이다.

이날 시상식은 수필가 장호병씨의 사회로 국민의례에 이어 송영목 회장의 인사말과 내빈 소개에 이어 시상이 있었는데 상패와 부상, 그리고 경주이씨 논복공 종중에서 10톤의 순금 메달을 수여했다.

심사위원인 권기호(43회) 경북대 명

예교수의 심사평에 이어 수상자 인사에서 권국명 시인은 “이번의 수상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더욱 작품에 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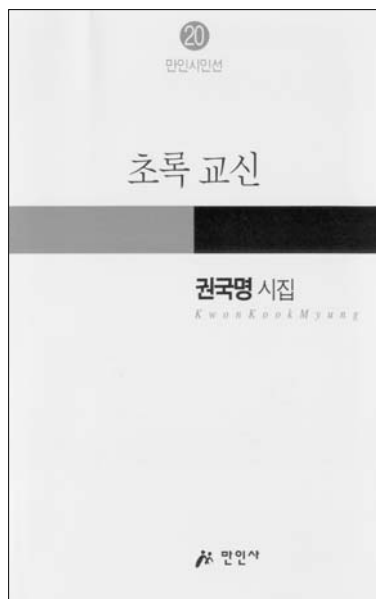
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의 수상작은 만인사에서 출판한 권국명 시인의 3번째 시집 『초록교신』이기도 한데 「자서」에서 수상자는 「깊은 수미(鑑美)의 바닥에 묻혀 있는 침향이 물밖에 나와 제 몸을 사루는 은은한 향의 내 생과 시로 찾아 헤매었던 것, 진공에 살고 싶었던 그것, 오랜 연의(煉意)와 연품(煉品) 후에 찾아오는 한미(閑美)하고 청적(淸適)한

시와 삶을 어디서 찾겠는가」라고 말하고 있다.

만인사

권국명 시집 / 정가 8,000원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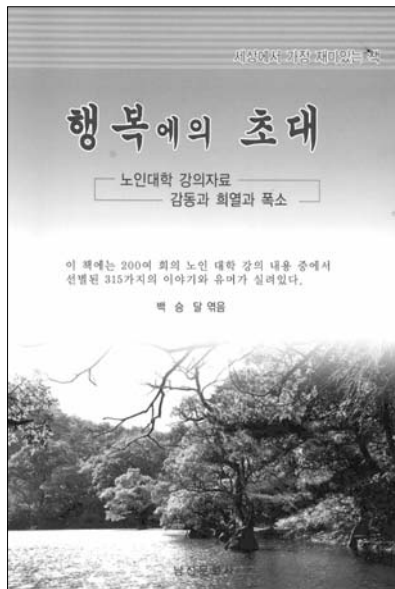
『행복에의 초대』

계명대학교에서 정년퇴임한 후 전국의 여러 노인대학에 초대받아 200회 이상의 강의 봉사를 해온 백승달(41회) 동문이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책’이라는 부제를 단 ‘행복에의 초대’를 출판하였다.

이 책에는 2만명 이상의 노인대학 수료자들에게 ‘감동과 희열과 폭소’를 선사한 315가지의 이야기와 유머가 실려 있다. (저자 연락처 018-403-7272)

남신문화사 / 380쪽

백승달 엮음 / 정가 15,000원



동문수필

모래성



강변에 사는 어린이들은 모래밭에서 흔히 모래장난을 하며 논다. 모래를 다독거리 집도 짓고, 논밭도 만들고, 때로는 모래로 그럴 듯하게 성벽도 만든다. 만들었다 허물고, 허물었다가는 또 만들고…….

이렇게 놀다 해가 지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툭툭 털고 집으로 돌아간다. 한나절 애써 장만한 모든 것을 미련없이 버리고 떠나버린다.

인생도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일평생 힘써 이루어놓은 모든 것을, 인생의 해가 지면 다 버리고 훌쩍 떠나버린다. 애써 모은 재물은 말할 것도 없고, 세상에 태어나면서 맺은 후천적인 모든 인연들을 일순간에 끊어버리고 빈손으로 훌훌 떠나고 만다.

옛날 시골 아이들은 팥따먹기 놀이를 많이 하면서 자랐다. 땅에다 둥그렇게 커다란 원을 그리고, 그것을 2등분해서 이쪽은 내 땅, 저쪽은 네 땅으로 정한다. 그리고는 짚그릇 조각이나 사금파리 조각을 갈라서 둥그렇게 만들고, 교대로

“인생은 모래성 쌓기와 같은 것, 팥따먹기와 같은 것,
그 후에 우리가 가야할 곳이 어디이며,
그 날이 언제쯤일까 한번쯤 생각해보자!”

그것을 손가락으로 통겨서 상대방 땅, 멀리 세워놓은 상대방의 그것을 쓰러뜨린다. 상대방의 그것을 쓰러뜨릴 때마다 한 뼘씩 상대방의 땅도 파들어간다. 찢다 잃었다, 옆치락뒤치락 상대방의 땅을 파서는 자기의 영역을 넓히려고

열을 올리고 있을 때 어머니가 부르시면 애써 확보한 땅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머니에게로 달려간다.

인생도 팥따먹기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긴 세월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제대로 못 입고, 인신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아귀다툼하며 모아놓은 세상 것들, 어느 누군가 오라고 부르지만 하면 우리는 아니 갈 수 없고, 갈 때 조금이라도 가지고 간 자 아무도 없는 것을!

그런데도 세상은 너무나 각박하게 돌아간다. 아무리 약육강식이요 적자생존이라 하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불공평하다. 그러다보니 못 사는 자, 소외된 자가 늘어나고, 살기 위한 수단방법이 잔인하고 가혹한 쪽으로 흐르고 있다.

생명의 존엄성이 땅에 떨어지고,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는 세상이 되고, 법보다는 주먹이 가까운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가야할 종착역이 어디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가야 하고, 인생의 해가 지면 미련없이 떠나야 한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해는 지게 되어 있다. 다만, 조금 길고 짧은 차이일 뿐.

인생은 모래성 쌓기와 같은 것, 팥따먹기와 같은 것, 그 후에 우리가 가야할 곳이 어디이며, 그 날이 언제쯤일까 한번쯤 생각해보자!



백승달(41회)


JEIL TECHNOS CO., LTD

새로운 건축문화의 리더-

(주)제일테크노스

- 조달청 우수제품 인정서 취득
(제 2005-153호)
- 산자부기표원 EM MARK 취득
(2005-046호)
- 대한건축학회인증
- 한국구조기술사회인증

Truss Deck

2way Deck Slab System

Truss Deck**J.F-Deck**

(Joint Floor-Deck)

Hi-Deck**NT-Deck**

(New Truss Deck)

용접결합이 없는 데크플레이트
하부면 노출시 도색불필요
접합부 누수방지

NT-Deck
(New Truss Deck)
Truss Deck



(주)제일테크노스
<http://www.jeil21c.co.kr>

본사

경북 포항시 남구 장흥동 1850번지 (철강공단 2단지)
 TEL : (054)278-2841(代) / FAX : (054)278-2917



대표이사 **나주영** (62회)
(총동창회 부회장)